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재미서울대동창회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uaa.org
website : http://www.snu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월간 9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3월 28일

신임 총동창회장에 林光洙 동문(공대 52 졸)



명예회장 김재순 동문



신임회장 임광수 동문

吳仁錫동문 관악대상 수상

지난 3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임광수동문(공대 기계과 52년 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林동문은 그간 공과대학 총동창회장 겸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왔다. 이임하는 김재순 회장(상대 46년 입)은 국내외 정치 사회적 격변기였던 지난 8년간 母校를 세계의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동문들의 여망을 집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유라 재미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林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金 전임회장에게 재임중의 노고에 감사하여 "재미동창회는 母校를 高揚하여 同門들간의 友情

을 다지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총동창회와 함께 재미 동문들의 성의와 노력을 모으겠다"는 서한을 (3월 16일) 보냈고 이에 林회장은 감사의 답신(2면 참조)을 보내왔다. 또한 이날 총동창회에서 시상하는 제4회 관악대상을 吳仁錫 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법대 58년 입학)이 수상하였다(관련기사 회보 96호 1면과 97호 수상소감 3면 참조). 吳동문은 수상연설에서 7,000여동문과 19개의 지역동창회로 구성된 재미 총동창회의 그간의 활동을 개관하고 관악대상의 수상은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에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와 고무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自助自立하는 재미동창회보 동문들 4년 및 2년 정기구독료 先拂 납입

이번 3월 22일까지 당 회계연도(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재미 동창회보의 구독료 납입동문은 1,103명에 달한다. 재미총동창회의 창립 1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동문독지자들의 관악후원금에 힘입어 중단 없이 발간을 계속하고 있는 재미동창회보를, 동문들이 납입하는 구독료로 自助自立하는 총동창회의 금년도 목표에 호응하여 동문들의 구독료 납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2년분 구독료 보냅니다", "4년분 구독료입니다" "부부 동문이니 한 부만 보내세요", 말과 함께 회보

구독료를 납입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기억력이 줄어 구독료 납입서를 찾지못하여 늦었다"며 회보 발행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예쁜 엽서(23면 하단 참조)를 함께 보내 오기도 한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제작되어 여러 가지로 수준향상의 여지를 가진 회보를 성원하는 동문들에게 감사 할 뿐이다.

금년에는 모든 동문들이 재미동창회보의 구독료를 내시어 재미총동창회가 자조자립하고, 나아가 동문들의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많은 동문들이 바라고 있다.

逸失된 회보 18호를 찾습니다

금년도 재미총동창회 11주년을 맞아 우리 재미 동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재미동창회보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The University of Chicago, 동아시아도서관) 逸失된 재미동창회보 초기 2년 분(#1-#22)을 찾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李種度 동문(공대 66년 입, 초대 신문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회보를 보내오고, Philadelphia 거주하는 尹석희(치대 68년 입), 주기목(수대 68년입) 부부동문이 정갈하게 보관된 회보를 보내왔다.

그 결과 이제 #18호만 찾으면 지금까지 발행된 재미 동창회보 전부가 확보된다. 재미총동창회의 역사를 복원하고 잃어 버릴뻔한 우리동문들의 삶의 기록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각 호 3부씩을 확보할 목표이오니 동문들께서는 다시 한번 서재와 다락방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동창회 解熱劑

뉴욕지구 약대동창회 관악후원금 \$1,000

NY지역 약대 동창회 (회장 성기호, 약대 61년 졸)는 재미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관악후원금 \$1,000을 보내왔다. 재미 총동창회는 뉴욕지역 약대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春來不似春」 때 아닌 눈꽃이 핀 시카고. 一隅, 2002. 3. 3 <사진촬영=시카고대학 권형기 동문(사회대 85입)>

서울총동창회에 재미동창회 寄與金 \$11,000 電送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해 평의원회 결의에 따라 책정되어 각 지역

- 목 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9면

동창회로부터 접수한 기여금과 미납 지역동창회를 위하여 재미총동창회의 구좌에서 차용한 금액으로 3월 8일에 \$11,000을 한국외환은행의 총동창회 구좌에 전송하였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朝貢"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지역동창회는 재미 총동창회로 지역분담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大學新聞팀 취재보고서 "세계의 대학을 가다" 受賞

제2회 한국대학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재미 총동창회의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지원으로 美國의 유수 4개 대학을 순방 취재하였던 大學新聞 기자팀(서지현, 석현해, 송재용)의 "세계의 대학을 가다" (관련기사 재미동창회보 94호 3면)가 한국기자협회의 대학 언론 위원회가 제정한 제2회 대학기자상의 기획보도부문의 수상작 셋중의 하나로 지난 1월 31일 선정되었다.

이 賞은 대학언론의 발전과 대학언론인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6개월에 한번씩 시상된다(대상, 기획보도부문, 전문보도부문, 특별상). 이번이 두 번째로 최종심사에 27편이 올랐으며, "과감한 해외취재와 다양한 취재기법

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한(한겨레신문 2월 6일자 김동훈 기자 보도 인용) 대학신문 기자팀"이 선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경역학과 독립운동' (연세춘추사 오승준)
 ◇기획보도 부문

▷ '세계의 대학을 가다' (대학신문사 서지현 외 2) ▷ '그늘을 향한 시선' (덕성여대신문사 박정미 외 3) ▷ '서울대 개혁과제' (서울대저널 박근복 외 2)

◇전문보도 부문 ▷ '아이야, 철길 따라 북녘으로 가자' (전남대신문사 고은경)

◇특별상 ▷ '2001 학생회 선거특집' (대학신문사 박성준)

공과대학 동문 주소록 자료 수집

工科大學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공과대학 동문들의 별도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개별 동문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공과대학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인명록의 자료 송고 양식(회보 27면 참조)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여 아래 주소로 급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투고처 주소 : 우편번호 120-7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주소록 발간실,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 임광빌딩내 임광토건 주식회사, FAX: 011-82-2-360-5099 전화 : 011-82-2-360-5001 ~ 3

"서울대 人名錄" 발간을 위해 동문들의 자료를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전체 동문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동창명부 "서울대 인명록"과 이를 담은 CD-Rom Title 발간을 위하여, 동문들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자료를 보내지 않은 모든 동문들은 인명록 발간 자료를 제 27면에 있는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4월 초순내로 2002년 인명록 편집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명록은 2002년 6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회원 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자료 송고 양식 27면 참조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 준비위원회(抄錄) 제11차 평의원회 6월15~16일 시카고에서 개최 예정

금년 6월 15일 시카고에서 개최예정인 제 11차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회(미주 전역 19개 지역 동창회장, 지역 동창회 등록 회원수에 따라 선출되는 평의원과 본부임원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관악부회장, 사무총장, 직전 관악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의 당연직 평의원을 포함한 66명으로 구성됨)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에 6시부터 9시까지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준비위원회가 (이용락 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김정주 총무국장, 전현일 신임 재무국장과 김정수 회보 편집인이 참석) 열려 진행중인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구경회 사무총장은 전년도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6월 8일과 9일의 날짜를 한 주일 늦춰 6월 15일

과 16일 양일간에 개최하고자 하는 변경 안을 그간 평의원 전원의 서면투표에 붙인 결과 현재까지 두 명을 제외하고 투표지를 회송한 (현재까지 전체 34명 회송) 전 평의원이 평의원회 개최일 변경 안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회의에서는 작년에 개최기로 하였던 재미 총동창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금년에 갖기 위한 행사준비(기념사진전, 재미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symposium 등)를 점검하고 평의원회에서 토론할 안건을 각 지역 동창회로부터 취합하기로 하였다. 재미총동창회 각 지역 동창회와 동문들은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사업에 관계되는 창의적인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제10차 평의원회 정기회의의 광경
 작년에 6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재미서울대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 제10차 정기회의가 시카고 교외의 옥브룩 힐스호텔에서 열렸다. 평의원들이 차기 집행부 선출과 정관개정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진촬영=정호 출판국장>

조수미 CD 인기속에 판매 계속

귀국선물로 10개 구입하는 뉴욕 동문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4천5백불 확보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동문이 지난해 8월 25일의 Washington DC 공연에서 열창한 동서양 가곡을 담은 CD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뉴욕의 한 동문은 귀국선물용이라며 CD 10개를 급히 전화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 CD의 판매금은 모두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과 재미 총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으로 납입되며, 잔여분 120개는 선착순 우편 주문 판매하며 31명의 주문서를 수표와 함께 보내시면 된다.

이번 호에서는 기사첨처 관악후원회와 기금위원회 집계판 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회비와 기금을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林光洙 총동창회장 재미동문들의 취임축하에 감사

수신 : 재미 서울대동창회 李龍洛 회장
 발신 : 서울대 총동창회 林光洙 회장

李龍洛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서울大 總同窓會 創立 33周年이 되는 今年에 總同窓會 會長의 重責을 맡았습니다.

個人的으로는 榮光이지만 公的으로는 더욱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의 就任을 따뜻하게 祝賀하고 激勵하여 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보내주시는 激勵과 祝賀가 헛되지 않도록 熱과 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찾아 뵙고 人事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우선 글로 대신함을 惠諒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愛情과 聲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2002년 3월 19일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 지난 2월-3월중에 재미 동창회보의 발간을 위한 관악후원금과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을 보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 관악후원금 (2월-3월 \$8,300),** 윤정옥(약대 50입) \$3,000, NY 약대동창회 \$1,000, 강창만(의대 58입) \$5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500, 최수용(상대 55입) \$500, 김호원(치대 52입) \$300, 노재욱(의대 64졸) \$300, 오태희(의대 58입) \$250, 조철원(문리대 66입) \$250, 김세경(미대 62입) \$250, 곽홍(의대 45입) \$250, 김예순(문리대 68입) \$200, 김팔주(농대 56입) \$200, 임수암(공대 62입) \$200, 이명상(문리대 59입) \$200, 김용재(의대 60입) \$200, 김성열(치대 61입) \$200,
- 백만불 기금 (2월-3월 \$5,200)**
 최수용(상대 55입) \$5,000, 황석우(의대 53입) \$100, 송창원(문리대 53입) \$100

吳仁錫 명예회장 冠岳大賞 수상소감

2002년 3월15일, 서울 신라호텔

오늘 관악대상의 큰 영광을 주신 이기준 총장님과 교직원분들, 서울대 총동창회 김재순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은 재미동창회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금년 11년을 맞는 모임으로서 미주지역에 7,000여 등록동문과 19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또한 CANADA의 4개 지역동창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32면 내지 36면의 회보를 발행하여 동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모교와 후진을 생각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시작한 터입니다. 이 시기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모교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매년 적어도 한번은 전국 각 지부에서 선출된 평의원들이 모여 전국평의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창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6월에 거행되는 이 모임에는 약 40-50명의 평의원외에도 관심있는 동문들이 참석하여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수백명 이상이 참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CHICAGO, ILLINOIS에서 개최예정이오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또한 모교와 미국의 총동창회에서 매년 순방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실로 재미총동창회 발전에 이 순방단의 기여가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순방단을 이끌고 재미 동창회를 격려 지원해 주신 김재순 회장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모교와 모교에 대한 정성을 선도하면 "기금"모금에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욱 미국은 자기 모교에 대한 기부문화가 비교적 보편화 되어 있고, 이미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에 유증하실 것을 약속하신 동문들은 물론,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신 동문도 계셔서 "기금"의 진로가 장기적이고 견고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키워온 모임의 덕으로 지난 2년 전 평의원회의에서는 모교와 후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을 시작, 일차적으로 백만불 모금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모금된 55만불 중 40여만불은 모교 발전 기금 사업들과 모교총동창회 장학사업, 모교 대학신문기자들의 미국 내 우수대학 방문 취재 사업 등을 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교와 총동창회 사업을 통한 금전적인 직접지원 이외에도 "기금"모금에 관심을 제고하고 모교와 후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계획중인 동문들 중에는 전문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으셔서 사회를 위해 유익하게 할애하실 수 있는 동문들이 계십니다. 이런 동문들의 시간을 활용하면 모교에 재학생인 후진에게 영어, 전산화 분야는 물론 어린 후진들에게 국제화에 쉽게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모교와 이러한 측면지원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재미동창들은 주로 1950년대 부터 1980년 중반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동문들이기에 이제는 각계각층 중시분야에서 성공하여 생활기반을 잡았거나 이미

다행스럽게도 이기준 총장님도 재미 동창회의 앞날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하셨기에 모금에 관한 관심도 높이고 동시에 후진에게 지적자원을 전수하는 일거양득의 PROJECT를 성공적인 궤도로 올리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관악대상을 주신 것은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발전에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와 고무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15일 오인석

신임재무국장 全鉉一 동문

(농대 66년 졸)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일신상의 사정으로 지난 연말 의원 사직한 김현옥 재무국장(사진 위, 문리대 71년 졸)의 후임으로 전현일 (사진 하, 농대 66년 졸)동문을 임명하였다.



전현일 동문은 "萬年財務"로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살림을 맡아왔고 금년에 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미 총동창회의 살림을 챙기는 중책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그간 NY으로 부터 Chicago로 총동창회 본부의 이전에 따른 재무관리기록과 기록절차의 점검 등에 수고하신 전임 재무국장 김현옥동문, 재무국장이 공석인 2/4분기의 과도기동안 총동창회의 재무관리를 차질 없이 맡아주신 백준철(공대 66년 졸)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총동창회의 어려운 살림을 챙기기에 나선 숲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보 게재광고접수

지금까지 광고 없는 순수 지면을 유지해온 재미 동창회보(회보 31면의 동문업체 안내판은 광고비를 "징수"한 것이 아님)에, 재미 총동창회의 부족되는 발간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게재할 광고를 접수합니다. 우리 회보는 지금까지의 편집 원칙인 재미 동창회원의 삶의 소식을 싣고 사색의 소산인 글을 모으는 知性人의 友情의 장을 고수할 것이나, 전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는 32면과 3부의 총동창회 광고란 서울소식 전제지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고 격조있는 광고지면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동문여러분의 광고면 활용을 권장합니다. 우선 31면의 안내판을 4월 호부터 재정비하고자 하오니 현재까지 안내판에 등재한 동문들께서 기여금으로 각 \$200 이상을 보내주시면 발간기금으로 절약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기여금은 현재 적자가 예상되는 금 회계년도 회보발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李龍洛회장 남가주동창회 총회 인사

2002년 2월 15일, L.A. 래디슨 플라자 호텔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이창광 남가주 지역동창회장님, 임낙균 차기회장님, 광철 수석 부회장님, 총동창회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오흥조, 서영석, 이명상, 방석훈, 전희택 평의원님과 재미 총동창회를 이끄시며 수고하신 이병준 고문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경 LA 총영사님, 멀리 한국에서 오신 母校의 이기준 총장님 일행, 이 지역 동창회 신년 총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동문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아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창립한지 이미 10년이 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금자족을 할 수 없음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은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동문 전체가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회보발간은 물론, 후진을 위한 장학사업, 기타 동창회의 뜻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재미 총동창회 남가주 지역동문들이 보여주시는 성의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은퇴를 시작한 터입니다. 이 시기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모교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동문 여러분! 그러나 재미 총동창회의 자조자립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을 가야함을 말씀드리며 계속적인 성원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제 6대 집행부의 1차 연도의 회보 구독료 납부자 수는 1,500 명으로 추산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그 납부자는 25%의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주소가 재확인된 전회원 수 4,500 명에 대비하면 3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를 60, 80, 100 %로 동문독자들의 구독료 납부의 증가에는 역시 남가주 지역동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보의 발간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자립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관악후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뜻 있는 동문들께서 관악후원회 이사가 되셔서 이 과도기의 회보발간 사업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보 구독료 납부 증가를 가능케하는 관건은 바로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에 있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있습니다. 따라서 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 6대 집행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동문전체가 참여하여 각자가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는 기자, 문필가, 생활지식,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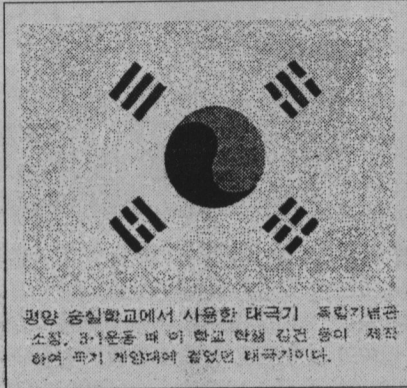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인은 재미 총동창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2대 강수상 회장님의 임기동안인 1995년에 현재의 체제대로 재단이사회와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가 통합하는 큰 과제를 이룬 후 제 3대 이병준 회장님의 헌신적 노력으로 재미 총동창회의 튼튼한 기초를 닦은 곳이 바로 이 지역임을 상기할 때 남가주 지역동창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자로 재미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는 현 오흥조 수석부회장께서 제 7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인은 그 때에 차기회장께서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인이 여러 동문들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배전의 참여로 다함께 도약하는 재미 총동창회를 이루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을 바로 몇일 지난 오늘의 이 축제 분위기의 남가주 지역동창회 총회에 본인을 초대하여 많은 동문 선후배들을 한자리에서 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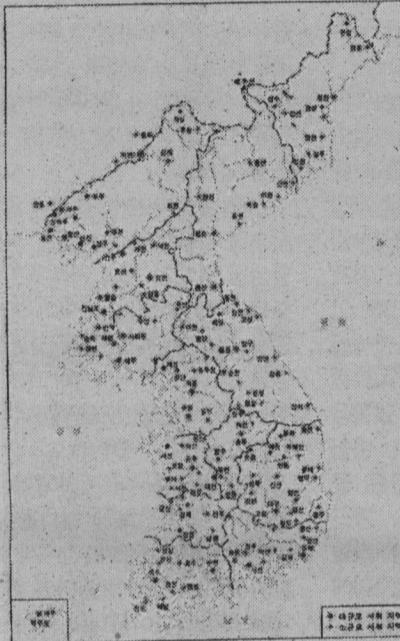
3.1절 아침에 부치는 남북통일의 염원

너무나 오랜 歲月이었어!

盧在煜 <의대 64년 졸>



3.1운동때의 평양 숭실학교 태극기.



한반도의 3천만이 다함께 일어난 3.1운동 때의 蜂起圖.

너무나 오랜 歲月이었어!
 “三十六年이 어둡고 긴 세월 이었다”고
 했지...
 그래도
 우리는
 挫折되지도 않았고
 死滅하지도 않았지만...

그 不美스럽던 三十六年은
 지나간 이야기...
 하지만
 不幸히
 民族의 悲劇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現 悲劇의 持續은 半世紀가 지나고도
 數年이 더 지나간 長長 세월...
 얼마나 더 많은 歲月을
 지나야하는지 모르면서
 期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다 알건만...

그 많은 일들이
 보고싶은 얼굴들을
 가슴에 묻고
 마지막 한마디 말도 傳하지 못해
 제 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他界했건만...

「얼마나 많은 靈魂이
 北대山 떠나
 故鄉 하늘 해매고 있으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북쪽 하늘 바라보며
 흐느끼고
 哀痛해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쪽 하늘로
 날아가는 철새를 바라보며
 心琴을 전 하지 못해
 痛嘆하고 있는가!

너무나 오랜 歲月이었어!
 기다리고
 哀願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시간이...

時間은 無限定 있지만
 그들,
 失鄉人들,
 離散 家族들에게는
 주어진 時間은
 하루하루
 줄어들어 時刻를 다투는바...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짧은 時間만이
 남겨져 있을 뿐...

「해마다
 新年이 올 때는,
 해마다
 三一節이 올 때는,
 해마다
 六二五가 올 때는,
 해마다
 光復節이 올 때는
 우리 함께
 祈禱하고 懇願했지만...

아직도
 期約도 없고
 言質도 없어
 우리모두
 心琴이
 에 타는데...

너무나 오랜 歲月이었어!
 “하루 빨리
 오랜 歲月이 끝나고
 그 새날이 왔으면...” 하면서
 기다리는 그 歲月이.

<筆者註> 2002년 三一節을 맞이하면서,
 現 美政府의 對北政策 發言 (以北을 惡의
 한 軸이라고 한) 後에 南北統一은, 반드시
 政治的인 것 아니라도, 더욱 멀어졌다는 마
 음이 생겨 心琴이 아픈바 이 글을 쓰면서
 우리들의 統一을 더욱 祈願하는 바입니다.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서울대의 危機?

1. 너무나 오랜 세월이었어! 노재욱 4
2. 친일청산 새규범으로, 장동만 14
3. 유전자로 우리 민족 뿌리 찾는다, 이흥규 15
4. 서울대의 위기? (母校 大學新聞 전제) 5
5. 인터넷 시대와 젊은이의 미래설계, 이상문 8
6. 환갑에 받은 가장 큰 선물, 김명자 9
7. 아! 서울대학교 : 6.3세대의 회고, 방준재 10
8. 5월! 서울미대 68학번 다 모여라, 이인선 10
9. 스키에의 도전, 이신삼 11
10. 한국축구 후원팀의 이름 적절인가? 김은희 11
11. 또 하나의 역사! 중국식 신자유주의론, 최진백 12
12. 오리건 안락사와 정책논쟁, 김일훈 16
13. 미국의회의 성조기의 판매사업, 장상길 17
14. Who will rebuild the broken bridge? 윤상래 18

이번 호 동문들의 論考 주제는 深重하다. 겨울은 생각하는 계절!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지만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돌아보게 된다. 새봄에 대한 꽃샘같은 3월에 내리는 눈의 靜寂은 일상의 굴레로부터 명상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97호는 새 봄을 맞이하여 모교와 조국의 성장과 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한국과 재미 동문들의 글을 모았다. 전 지구가 한 마당이 된 오늘이지만 세계문화에 창조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묶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재욱의 三一節辭와, 장동만의 우리의 식민지하의 어두운 역사를 直面하자는 글과, 미대륙에서 커나가는 2세대의 응어리진 가슴속에서 우리나라 문화활동을 보고하는 윤상래의 수상을 담았고, 한국의 최고대학으로부터 세계의 창조적인 업적을 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母校의 現住所”를 재검하는 大學新聞에 게재된 재학생 및 기자들과 오세정 교수의 글을 우리 회보의 반주(反舞)의 자료로 담았다. 방준재의 정치적 격동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6.3세대의 회고, 母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동문들의 母校에 대한 반포지성을 촉구하는 김명자의 아들자랑, 보다 넓은 안목으로 미래의 설계를 추구하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이상문의 편지, 미술대 친구들에게 졸업 30주년을 맞아 보내는 이인선의 편지, FIFA CUP을 향하여 약진하는 한국축구를 상징하는 격조있는 응원에 대하여 쓴 김은희의 제언, 정체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상태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의 전망을 三角法으로 모색하는 최진백의 중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한 論考, 서울로부터 최신 생명공학의 기법으로 우리민족의 뿌리를 찾는 이흥규, 이신삼의 “60 靑春”의 모험적인 스키강사 자격에의 도전기를 실었다. 또한 장상길의 “다인종 용광로”인 미국의 일견 상업주의적인 국회에 계양된 국기의 판매를 통한 애국심 고취사업은 하나의 지구촌 사회에서도 응집력있는 정치단위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람들의 長壽壽세에 따라 제기되는 尊嚴死에 관한 美國의 정책논쟁을 김일훈이 다룬다.

동문들이여! 새 봄을 맞이하여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나라는 생각들을 이 지면에서 동문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 회보를 더욱 활발한 論壇으로 만듭시다!
 끝으로 부족하고 서툰 손으로 이번 호의 論壇을 구성하도록 “앞으로 50년 후 해방 백년 후에 母校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도록” 바라며 한국일보 사설을 보내주신 금년에 팔순 생신을 맞으신 이 기억(문리대 47년 졸) 선배님과 대학신문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게 한 “서울지국장”과 대학신문의 후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서울대의 危機”?

세계를 지향하는 선진 고등교육기관이 되기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투고요청: 한국의 금년도 대학 입시철에 생겨난 이변중의 하나는 서울대에 입학허가를 받은 많은 학생들의 등록기피현상과 특히 理工系 기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Who cares? for what? how??)

누군가 教育은 百年之大計라고 하였던가? 창의적인 學者를 훈련하고 사회발전의 樑木之材를 기르는 일은 사회 경제적 여건만이 문제인가? 교육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삶의 의미와 自我발전을 위한 건전한 목표 설정, 원칙에 충실한 삶, 師道정신과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學問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뼈아픈 노력들이 모아질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대학학부 교육의 요체는 무엇인가? 바로 읽고 바로 생각한 바를 정연한 말과 글로써 발표하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교육관계자(교수, 학생 및 도서관 관계자)는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였는가? 교육개혁은 교수와 학생간에 진리 추구의 동반자로서의 대화가 있는 강의실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眞理와 自由와 正義의 추구라는 학문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느 시대에나 어렵지만,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學生들은 時流에 영합하지 않는 決斷으로 삶의 목표를 세웠는가? 창의적인 연구실적을 내는 대학원 교육은 어디에서 시

작되는가? 대학 학부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 기초를 다진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원생으로 부터서만 우수한 학문적 업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서울대 화려한 외양 뒤에 초라한 연구풍토”와 “인문. 사회대생 절반이 고시에 메달려..”라는 일반 신문지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때다. 22년만에 관악산을 돌아 본 “이방인”의 가장 큰 슬픔은 관악산의 맑은 물이 흐르던 신림동 개울주변이 온통 高等考試村으로 바뀐 것을 목도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母校는 그 문화, 사회 및 역사적인 遺産때문에 한국에서 最高의 대학이라는 독점적인 聲價를 누려왔고, 이 명성때문에 모교의 내실있는 발전과 한국고등교육의 경쟁적인 발전체제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기 보다는 현재에 만족하고 安住하지는 않았던가?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이런 문제들이 금년도 한국의 입시철에 모교에 들이닥친 “충격적인 현상”의 實體가 아닐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의 보다 깊은 성찰을 요한다.

① 신입생 정시 등록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② 科學立國의 기초가 되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이것만이 문제의 전부일까? 우리는 즉흥적인 母校危機論으로만 이 문제를 말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 내에

서의 모교의 탁월한 位相의 위기라는 小乘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터 나아가 한국고등교육의 체제개혁이라는 大乘의 관점에서 도 다루어져야 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 최근의 (3월 3일과 10일 자) 모교의 大學新聞의 관계기사 및 글을 전재하여, 서울에서 느끼는 “危機意識”들을 후배 재학생기자와 동문교수의 현장의 감각으로 듣고자 한다.

이는 우리 재미동문들의 母校의 發展과 한국 고등교육의 장래에 대한 論考를 위한 자료의 일부가 될 것이다. 또한 동문들은 회보 #96호(02-28-02)의 23면에 수록된 해외의 지명 고등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보고서(“Blue Panel Report”)에 대한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재미 동창회보는 모교와 한국의 고등교육 제도가 직면한 이러한 挑戰에 대하여 동문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아울러, 각자의 한국과 미국의 사회와 교육 경험에서 우러난 글들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나름대로 모교를 향한 사랑이며 이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應戰의 일부가 아닐까?

지금 母校가 당면한 이 危機를 세계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契機로 바꾸기 위하여 여러 동문들의 다양한 고견을 기다린다.

大學新聞

The Daehak-Shinmoon 발행인: 이기원 편집: 박영우 부편집: 임근호, 임인성, 박아름

10년후 학교 모습은?

신입생 등록률 사상 최저

간호대·농생대 사범계열
사상최초로 수시추가모집 실시

올해 우리 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등록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 모집 정원(3천9백60명)의 4.2%인 1백6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올해 결원분은 2001년 결원분인 60명에 비해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결원이 많은 곳은 농생대 자연계열로 모집인원 3백16명 중 85명이 등록을 포기해 정원의 73.1%만이 등록했으며, 생활대 자연계열은 72명 중 19명이 등록하지 않아 73.6%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간호대와 농생대 사범계열의 경우 정시모집 정원에서 각각 50명, 18명이 미달돼 사상 처음으로 수시추가모집을 실시했고, 각각 41명과 15명이 등록해 전체 정원의 88%와 86.4%의 등록률을 보였다. 수시추가모집에서는 간호대와 농생대 사범계열이 각각 9.18대 1, 1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등록률은 단과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 치대, 미대, 법대, 음대는 1백%를 기록했으나, 농생대 76.9%, 생활대 83.5%, 수의대 87%, 간호대는 88%에 그쳤다. 우리 학교는 이번엔 생긴 미충원 인원을 2003년 정원으로 넘겨 선발할 계획이다. <이상화 기자>

이공계 기피 현상 서울대의 대처방안은?

吳世正 (문리대 75년 졸, 물리학과 교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많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의 자연계열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은 의·치·한의학 등 소위 '돈 벌리는' 분야로 몰리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서울대에서도 공대와 자연대의 대학원에 정원 미달사태가 나타나, 올해 학부생 정시모집에서는 신입생 1차 등록률이 사상 처음으로 81% 수준으로 떨어져 큰 충격을 줬다. 이같은 서울대 이공계열 추락 현상은 인력의 질이 양보다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에 비춰 볼 때 국가의 미래경쟁력에도 위협이 되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이같은 서울대 이공계열의 급격한 추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막을 대책은 있는가. 물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는 과학기술자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보다 손쉽게 점수를 따려는 안이한 자세 등 서울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대 자체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

고, 이를 위한 서울대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입학 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처럼 '서울대라는 이름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지원하는 학생 중 입학생을 선별하려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된 시대에는 서울대의 경쟁 상대가 국내 대학만이 아니다. 이미 많은 우수한 학생들은 고교 시절부터 유학을 가거나 고교 졸업 후 바로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포항공대와 과학기술원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제는 서울대도 교육부의 확실적인 간섭과 평등화 정책을 벗어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시 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엄연히 존재하는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은 서울대 이공계열의 인재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둘째로 이공계열 학과(부)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러차례 지적된대로 자연대와 일부 공대의 경우 건물과 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수학 여건은 극히 열악하다. 외국 유수 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국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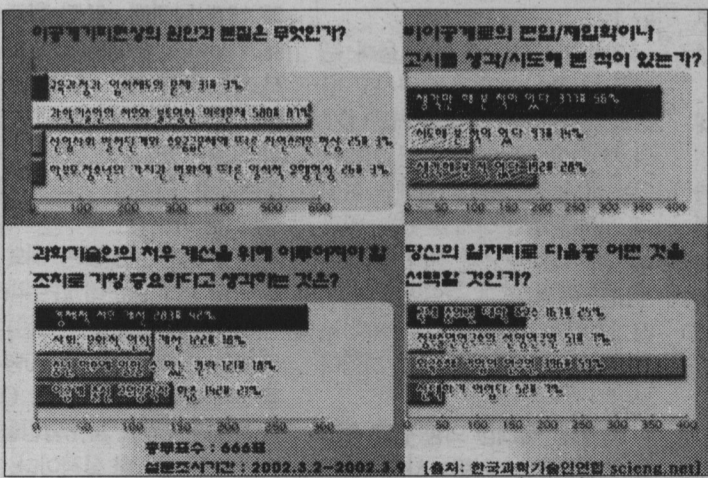
많은 대학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 오죽하면 최근 서울대를 평가한 최고자문위원단이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까지 평했을까. 이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로는 입학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대 이공계 교육이 아직까지 이런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함은 교수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건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서울대 박사 취득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본교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다만 '돈되고 편한' 직업보다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을 택하는 학생이 많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학교 이공대생은 지금...

힘든 공부, 암울한 미래

김세은 기자



"10년 더 다니면 연구소는 그만 뒤야 될테니 그 기간동안 다른 공부를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94년 우리 학교 석사과정을 마치고 작년 5월까지 7년간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윤민수씨가 2002학번으로 차대에 입학하며 하는 말이다. 50살 넘어서까지 연구소에 남아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국립연구소는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연구소 측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그만이지요"하며 씩씩해하는 그는 15년간의 '기계항공학도'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35살의 나이로, 6살 짜리 딸을 둔 아버지의 위치에서 새로운 길에 나섰다.

이공계 학생, '상부구조' 진출 어려워

올 입시결과 나타난 공대 81.7%, 자연대 81.9%라는 등록률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에 대해 자연대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현장의 엔지니어나 대학원생들이 몸소 느끼던 문제들이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표면화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공계에서는 물리, 화학, 미적분학 등 만만찮은 기초과목을 배우고 이외에도 매 시간 퀴즈, 실

험, 프로젝트 등에 시달린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해서 임성환씨(재료공학·3)는 "과학공부를 해봤자 국가정책이나 사회발전 문제에 참여하기 힘든 '기능인'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말했다. 김태유교수(지구환경시스템공학) 역시 "대기업 인원의 절반이상과 신규 승진의 80%가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은 현실에 적응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정부관료층은 3급이상 공무원의 9%만이 이공계 출신으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공계생들은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고시에 도전하듯 변리사, 기술고시를 택한다. "불안정한 연구소나 회사에 취직하는 것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준동씨(조선해양공·2)는 말한다. 공대의 한 교수는 "21세기는 첨단기술사회로 '지적소유권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공계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이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그

보다는 '학문'이 아닌 돈벌이에 집착한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나마 연구소에 취직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는다. "막상 결혼할 나이가 되니 대접이 다르더군요. 지방이라도 의대 간 친구에게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하지만 돈 대줄테니 연구하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은채씨(박사과정·재료공학)의 푸념섞인 말이다. 의대생 못지않게 공부하지만 이공계생에게는 의사만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윤민수씨도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적인 '과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보수 적인 직장인' 정도로 여겼다"며 "일에 대한 긍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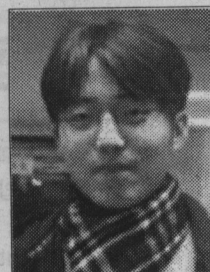
이공계를 떠나 보다 편한 일을 찾으려는 사람도 많지만, '이공계 기피'를 말하는 지금도 우리 학교 이공대 연구실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박준형씨(박사과정·응용화학)는 "하고 싶은 일이고 창의적인 작업이라 보람있다"며 "연구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한다. 다만 그는 "외국의 프로젝트 성공률은 20~30%인 반면 우리나라는 80~90%에 달합니다. 성공가능성이 없는 연구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연구라도 자유롭게 재량껏 할 수 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는 국제적으로도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20%만이 서울대가 하버드대 혹은 스탠포드대보다 더 낫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반면, 카이스트가 위 두 대학보다 더 낫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48%에 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명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음에도, 다른 국내 유수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에 비해 학문적 환경과 연구수준, 졸업생들의 국제 경쟁력, 시설, 졸업생 취업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6%의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업적 평가 △강의 질 향상 △국제화 △정부 투자의 증대 △기금마련·배분의 자율성 확보 △인사·재정의 독립성 △이사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엄격한 교수평가, 국제화, 자율성 확보, 기부금 활성화 등은 블루리본패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공계 非對委

최성민 기자



공대는 지난 달 25일(월) 이번 입시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현상과 '공대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민교수(전기공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10명의 공대교수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이공계 기피와 공대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대를 졸업한 국내 유명 최고경영자들의 성공사례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책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상부 포항제철 회장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선진국 이공계생의 실태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데 참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대위 구성은 올해 정

시모집에서 다른 학교 의대나 한의대의 1차 등록률이 90%를 넘긴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학교 자연대와 공대에서는 1차 등록률이 82%에 그치는 등 이공계열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데서 비롯됐다.

이는 IMF 이후 정부 연구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중 많은 연구인력들이 퇴출된 데다 연구원에 대한 지원과 대우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신입생들이 희망전공 진입가능성이 한층 불투명해진 것 역시 이공계 학생들을 장대가 보장되는 의대나 치대로 내모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 서울대의 현주소

정석우 기자

'서울대가 미국의 중하위권 대학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블루리본패널의 보고서 발표 이후 [재미동창회보 96호 23면 참조] 서울대 개혁 논란이 다시금 뜨겁게 일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는 우리 학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으며, 학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4월에는 장기발전계획이 나올 예정이어서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은 『대학신문』은 우리 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해보는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①서울대의 현실 ②교육 ③연구 ④재정 ⑤운영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심는다[서울대학신문 Website : <http://weekly.snu.ac.kr>].

각계 인사와 언론이 서울대 문제를 다루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재기획 '서울대 거듭나기'의 첫 회인 '서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서는 현재 서울대의 현실과 서울대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학교가 87년 수립했던 '발전 장기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논의 중인 발전계획의 윤곽을 더듬어 본다.

'서울대, 화려한 외양 뒤에 초라한 연구풍토', '인문, 사회대생도 절반이 고시에 매달려...'

□「한겨레신문」의 연재기획 '서울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소재목들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기획을 통해 서울대의 '입시이기주의', '서울대 공화국론', '초라한 연구풍토' 등을 면밀히 파헤치고 있다.

「조선일보」도 연재기획 '서울대와 세계 일류대 비교'를 통해 '공부 안 하는' 서울대 학생들과 엄정한 학사관리로 공부에 전념하는 '세계 일류대' 학생들을 대비시킴으로써 교수 경쟁력 강화, 학사관리 엄정화 등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 연재기획의 규모나 논조로 미뤄볼 때 '진정 서울대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서울대의 현재를 조망해보자.

서울대는 약 1백20만 명의 부지에 16개 단과대, 81개 학과(부), 96개 석사과정 학과(부), 89개 박사과정 학과(부), 3개 특수대학원, 3천8백9명의 교원, 1천15명의 직원, 그리고 3만2천2백84명의 학생들로 이뤄진 거대 대학이다 (2001년 기준).

연구 여건 고려하면 해외 대학과 연구 성과 단순비교는 무리

그러나 서울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난 10년간 20명 안팎을 맴돌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치가 14.6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7면에 계속>

서울대, 더이상 국내 최고 아니다

맥킨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이경일·정석우 기자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내놓은 '서울대 시장조사(Confidentia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ket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가 국제적으로도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지의 학부모 550명(우리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백명 포함)을 대상으로 세계수준의 국내대학 육성 필요성, 우리 학교의 국제적 수준에 대한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지지도 등에 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89%의 응답자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해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낼 필요가 없도록 국내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내 대학이 자녀 교육을 위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우리 학교 학부모는 57%인 반면 다른 대학 학부모는 43%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국내 교육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23.3%가 해외로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56.8%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국내 대학의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자녀를 유학 보내려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 우리 학교



<6면 2002년 서울대의 현주소서 계속>

특히 미국의 하버드대, 미시간대, 위스콘신대의 경우 전임교원 대비 학생수가 각각 7.7, 13.2, 12.9명으로 서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6백10만원으로, 하버드대의 1억4천8백24만원, 도쿄대의 6천5백29만원에 크게 뒤떨어진다.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

「대학생활문화원」에서 2002년 2월 학부졸업생 2천1백51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보통'을 뜻하는 3점(5점 만점)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학과 공부의 소홀로 이어진다. 서울대 해외자문단인 블루리본패널이 지난해 학생 6백88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외에 하루 학과 공부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6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취업위기와 그에 따른 고시열풍 등이 학생들이 학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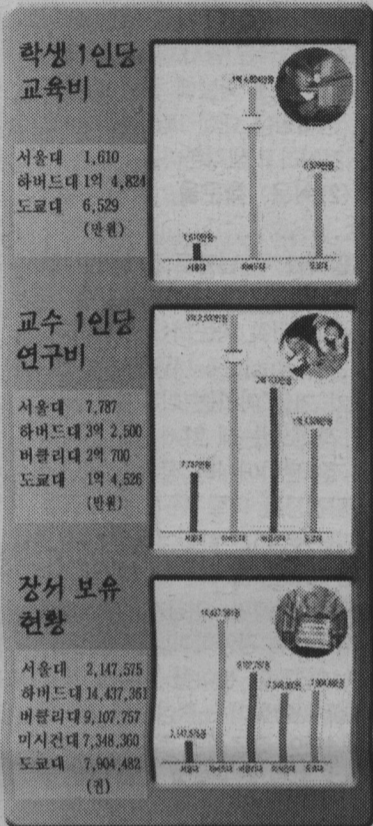
취업 준비 바람에 전공 공부 시간 2시간 미만, 69%

연구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서울대 과학기술논문색인(SCD) 등재 건수는 2천2백2건으로 세계 55위를 기록했다. 55위권 안에 국내 대학은 서울대 하나밖에 없어 연구실적은 국내 대학 중에서는 뛰어난 편이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의 연구여건을 살펴보면, 교수 1인당 연구비는 7천7백87만원으로 하버드대의 3억2천5백만원, 버클리대의 2억7백만원, 도쿄대의 1억4천5백2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2백14만7천5백75권으로 미국 대학 94위인 조지아대 수준에 불과하다. 도서 구입비는 연간 3백73만9천2백75달러로

미국 대학 108위인 하워드대 정도다.

지난해 서울대 연간 예산이 약 2천9백9억원으로 하버드대의 1/13, 미시간대나 위스콘신대의 1/9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대학들과 서울대의 연구성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일처리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장 견제와 공식 의결을 위한 기구로서 '교수의회'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내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재정부문에서 연구성과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연구 및 교육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 설립'이 제기됨과 아울러 자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 '독립회계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시모집 최종 미등록율이 서울대 입시 사상 최고인 6%를 기록한 올해, '위기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대의 현실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해 앞으로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대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경일기자

실행되지 못한 계획

서울대는 1946년 개교한 이래 「서울대 종합화 10개년 계획(1968~1977)」부터 1998년에 작성된 「서울대 장기발전구상」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학교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다.

이 중 공식적인 발전계획으로 처음 인정받은 「서울대 발전장기계획(1987~2001)」(87년 계획)은 학교에서 발전방향의 지표로 활용해 온 만큼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 중 발표될 예정인 2002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교수(사회복지학)는 "87년 계획은 학교의 첫 공식적인 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예산 부족, 서울대 특별법 추진 좌절 등으로 많은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해, 곧 선보일 장기발전계획에는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우리 학교의 미래상을 확고히 제시한 87년 계획에서 중요한 목표는 연구활동의 진작이었다. 대학원생 수를 늘리고 학부생 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대학원생 수는 40% 가량 늘어난 반면 학부생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또 교수 수는 현재 1천4백74명(2001년 기준)으로 당시 목표인 1

천9백3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도서관의 경우 장서 수나 전문사서 수 면에 있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홍두승 교수(사회학)는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본부 집행부가 나서야 하지만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11월 장기발전계획(2002~2011) 시안 공청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문대학원제도도 사실 87년 개혁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87년 계획에 따르면 의대는 92년 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고 법대는 2년 예과와 3년 본과로 운영하며 97년에 치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는 치의대만 2005년 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김동건교수(행정학)는 "그간 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단과대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대학행정 면에서도 평의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안이 87년 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평의원회는 현재 의결기능은 물론이고, 심의기구로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 학교가 교육부에 종속돼 있어 자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는 본부에서, 운영비는 단과대에서 책정·집행하는 '준독립체산제' 역시 87년 계획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발전계획안의 핵심은 '자율성'

학생회 의견 반영 방안도 논의 중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본부는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다음 달 나올 예정인 장기발전계획안(2002~2011)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교육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와 단과대별 자율성 보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대학운영체제에서는 교수의회를 도입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집행부인 총장을 견제하는 방안이 구상됐으며, 총장 선출은 우선 직선제로 하되 추후 간선을 고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단과대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해당 대학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할 방침이다. 경영대의 경우 MBA 도입에는 유보적이며, 법대는 향후 10년 이내 로스쿨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학생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회가 교수의회의 산하기구인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등 당초 시안에는 없었던 학생관련계획도 첨가됐다.

서울대가 세계수준에 크게 뒤진다는 뉴스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연계열 교수들의 논문 출판 횟수도 도쿄대 하버드대의 4분의 1 수준이고, 도서관 장서 등 학습 여건 면에서도 같은 사정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의 조사와 비교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마저 그렇다니, 나라의 장래를 어디다 걸어야 하는가. 하버드대 도쿄대 시카고대 등의 석학들로 구성된 서울대 경쟁력 평가 단 보고서는 "서울대 학생들이 단순 암기력과 지능 지수는 높지만 창의적 사고력은 뒤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사고력이 떨어

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란 영화를 통해 알게 된 외국 명문대 학생들의 학구열과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보고서는 서울대처럼 느슨한 졸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세계에 유례가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학만 하면 졸업 할 수 있고,

"충격적인 서울대 평가"

한국일보사설 2001/12/18



창의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에는 힘겨운 모교 중앙도서관 전경.

세계적인 대학들과 10~20년 뒤 떨어져 있다는 진단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교평가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의 면학열도 떨어져 희망을 갖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육여건이 나쁘더라도 학생들이 만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리 비판할 일도 아니다.

어지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서울대생' 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입시 정책 및 제도와의 골고루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런 일이다.

평가단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생의 70%가 하루 2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

졸업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는 대학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창의력 없는 서울대생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물 안에서만 활개치는 '한국의 서울대'를 벗어날 거목적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를 편집자에게 보내어母校 발전을 걱정하신 이기억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인터넷시대와 젊은이의 미래설계

李相文 (상대 57입, 네브라스카대 교수)

입시철인 요즘 한국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과거와는 다른 두 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즈음에 넓은 취업의 문이 보장될지의 여부를 전공선택의 기준으로 삼고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각 기관들은 저마다 "21세기의 유망직종" 등을 발표하며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고 있다. USA 투데이는 지난해에 최근의 수입, 성장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세기 유망직종 50'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시스템분석가를 필두로 컴퓨터 엔지니어, 정보시스템 관리자, 증권, 금융서비스 판매 등 순위 안에 든 직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업과 정보산업 관련에 집중되어 산업구조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험생들의 극심한 이공계 기피현상이다. 이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91년 59.3%에서 97년 67.3%로 다시 2001년 71.6%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공계 출신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보수나 승진 기회 등에서 인문계에 비해 뒤지고 전직할 때에도 직업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점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사회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며 선진국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경우 응시자들의 계열별 비율이 98학년도 42.4%에서 2002학년도에는 26.9%로 줄어든 반면 인문계는 48.4%에서 56.4%로 늘었고 모교인 서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연대와 공과대의 등록률이 80%에 그쳐 몇 차례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법칙이 상

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 인재의상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예측에만 기초한 유망직종의 제시만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젊은이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역군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남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필자가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터득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는 세상에 어쩌면 엉뚱한 예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품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는 법칙들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법칙 중에 "수직적 해체(vertical disintegration)"라는 것이 있다. 과거에는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밖에서 사는 것보다 안에서 만드는 것이 싼 이상 지속적으로 수직적 통합을 해야 한다"는 노벨상을 수상한 Coase교수의 법칙에 따라 기업들은 가능한 한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들은 고무농장, 철강회사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직적 해체의 시대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기능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외부기업과의 효과적, 전략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구매하려 애쓰고 있다. 즉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명한 법칙인 멧캐프(Mectcalf)의 법칙은 3Com사의 설립자였던 로버트 멧캐프의 이름을 딴 것으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숫자를 제곱한 수치만큼 빠르게 증가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예로 들면 연결된 사용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수록 그 가치와 효율성은 급속도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팩스가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을 때의 가치와 많은 사용자가 있는 지금의 가치의 차이가 이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이론은 기업의 경영에도 적용이 되는데 기업은 계속해서 협력관계(partnership), R&D 계약,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쌓아나가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멧캐프(Mectcalf)의 이론은 개인, 조직 내의 각 부서 등 모든 단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법칙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산적인 관계의 설정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직원, 부서, 기업, 산업간의 관계의 설정이 기업의 능력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 집단이 정보를 독점하는데서 권력과 부가 창출되었다면 이제는 집단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데서 창출이 된다. 즉 주변의 작업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데 능숙한 작업자가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일부기업들은 이

미 생산적인 인적관계(human network)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인 사고과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갤럽(Gallup)사가 실시한 최근의 연구조사결과 역시 효과적인 조직간의 협력관계의 창출능력이 기업의 경쟁우위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생산적인 관계는 결국은 당사자간에 신뢰에 기반을 두게 되는데 신뢰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쉬운 학문을 쫓지 말아야.....

필자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공계, 자연계로 명칭되는 기술적인 학문의 중요성이다. 최근에 Business Weeks는 "21세기 기업"이라는 기획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 21세기의 리더십은 한 분야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을 바탕으로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공계, 자연계를 공부한 후 경영학이나 법학과 같은 개념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노력하여 따라선 개념적인 학문에만 치중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M의 최고경영자였던 전기공학 박사 알프레드슬로언과(Alfred Sloan)과 GE의 최고경영자인 화학공학 박사 잭 웰치(Jack Welch) 등 이공계통을 공부한 미국의 많은 성공한 경영자들과 대한항공,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통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공대 출신들이고 10대 그룹 임원 중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 53%를 점한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 가야할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렵더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생산적인 관계를 창출하고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일 것이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부서, 기업, 국가 등 모든 단위간의 관계의 설정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창출해 나가는데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한 분야에 매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 일 수 있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아닐까?

GM의 최고경영자였던 전기공학 박사 알프레드슬로언과(Alfred Sloan)과 GE의 최고경영자인 화학공학 박사 잭 웰치(Jack Welch) 등 이공계통을 공부한 미국의 많은 성공한 경영자들과 대한항공,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통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공대 출신들이고 10대 그룹 임원 중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 53%를 점한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 가야할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렵더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생산적인 관계를 창출하고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일 것이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부서, 기업, 국가 등 모든 단위간의 관계의 설정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창출해 나가는데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한 분야에 매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 일 수 있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아닐까?

서울대를 둘러싼 개혁안들

'입시'와 '학벌'을 타파하라

이상화 대학신문 기자

서울대 개혁 논의는 극단적으로 서울대를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분야를 특화해 발전시키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 다양한 견해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입시'와 '학벌'이다. 서울대가 상위 5천명의 우수학생을 싸늘이해 인재를 독점하고, 정관



계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서울대 출신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학벌 카스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처럼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정영섭교수(건국대·경제학) 같이 폐지가 바람직하나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서울대를 민영화해 독점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와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현택수교수(고려대·사회학)와 같은 경우는 단과대별로 대학을 해체하고, 각 단과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해서 서로 경쟁시키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로서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바로잡고 더불어 서울 집중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지금처럼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보다는 일부 분야에만 치중하게 하자는 특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최갑수교수(서양사학)는 서울대가 '돈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과 투자비용이 막대한 공학, 기초의학 등의 분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거용교수(상명대·영어교육)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모두 각각 일부 분야를 특화시키자는 국공립대 통폐합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외에 장희익교수(물리학)는 입시, 학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간 학부정원을 뽑지 않고,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학부를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위와 같은 견해들이 대학 서열화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데 비해, 다른 비판들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대 개혁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시, 학벌문제와 서울대의 발전이라는 전혀 다른 문제가 혼재돼, 발전을 기하려는 개혁안이 자칫 입시, 학벌문제와 얽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국립' 서울대가 거듭나는 첫 걸음인 듯하다.

부모의 모교에 장학금을 내는 자랑스런 아들

환갑에 받은 가장 큰 선물

金明子(문리대 66년졸)

1월 28일자 본 회보에 기고하신 "한 알의 밀 알이 씌어서.." Dr. 정정수(Phila 거주, 미주연대 회장)동문의 글에 동감하는 바가 많

아이 글을 쓴다. Dr. 정 말씀처럼 우리가 서울대 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나타내지는 않는 듯 하면서도 하바드를 나왔다는 긍지가 대단하다. 그러나, 많은 동양 부모들이 그렇듯이 내가 어떤 기회에 하바드 어찌고 하면 우리 아들(하바드 90년)은 정색을 하고 엄마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고 꾸중을 듣는다. 미국의 어느 대학이던지 50번째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잡지에 의하면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70번째 인가 된다는 것을 아느냐고 자각을 시켜 준다. 나는 70년도 중순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고, 강의, 실험실, 도서관등은 서울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한 과목씩 끝 낼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도 내 판에는 한다고 했던 서울대학에서의 엉터리 공부가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허다했다.

아들은 한국에 10년간을 자주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큰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울대 졸업생을 상대하게 되는데, 답답하고 웃기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고, 심히 말한다면 그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따지고 나서고, 그 때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도 동의할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자기가 동경에 5년간 머물다가 LA본사로 오기 위해서 한동안 한국의 사업을 맡아 볼 책임자를 찾았는데 제일 먼저의 조건이 서울대학 졸업생이었다.

Dr. 정 말씀처럼 서울대 동창회보와 의대 동창회보인 시계탑은 정말 수준이 있고 권위가 높은 신문이라고 오래 전부터 수긍하고 있었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재미있게 읽었으며 적어도 신문 값만은 빠지지 않고 보냄으로써 우리의 몫은 하고 싶었다.

우리 딸은 하바드(93년)를 졸업하는 해부터 한 푼도 못 벌고 대학원엘 다니면서도 최저 금액인 \$25.00을 꼬박꼬박 자기 대학에 보냈는데, 그 정신이야말로 정말로 자랑스럽고 본 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 동안 아들은 하바드와 여러 곳의 비영리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200%를 더하여 주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서 자라면서 옮겨 배웠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제대로 잘 살고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면 "It's a good cause!"란 말 한마디가 항상 아들의 대답이다. 벌써 제법 오래 전의 일이다.

LA의 아들로부터 대낮에 전화가 왔고, 자기가 상상외로 많은 상여금을 받았으니, 오마하에 있는 비영리 단체 몇 군데 기부를 하고 싶은데 추천 할만한 곳을 말해달라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해 오면서 콧마루가 시큰둥 해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오마하 교향악단 Guild 임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과거 몇 년간은 책임자로 일하다 보니, 어느 단체나 항상 돈이 필요하고, 그 단체의 흥망은 얼마큼 많은 돈을 모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내가 아끼고 중요시하는 교향악단에 기부하겠느냐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재정적으로 해매는 우리 교회, Humane Society등을 열거해 나가는데, 아들은 공립학교인 자기 고등학교도 포함시켰다.

나는 교외의 좋은 공립 학교라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고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교장에게 전화했을 때, 금방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안이한 생각 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즉, 그 학교의 교장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교외의 부자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깎을 때로 깎고, 정말로 필요한 곳은..."하면서, 공립학교를 위한 예산중의 대부분이 시내의 학교로만 책정되고 모든 신경들을 쓴다는 것이 그 교장의 설명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사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장이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모은 원하는 종목들은 한 없이 많았다.

사회학과에서는 세계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CD ROM을 원하고, 영어학과에서는 좋은 laser printer와 복사기 기계도 원하며, 과학과에서는 신식 천체 망원경, 외국어과



자랑스런 아들들 둔 오태요(의대 62년 입)와 김명자 동문부부.

에서는 새 TV와 VCR player, movie camera, 등이었다. 또, 체육학과에서는 새로운 유니폼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한 마디로 거절하였다. 결국 아들은 한 해에 몇 가지씩 지원하고, 학교 내에서 연락에 사용하는 Intra-Net과 General Fund로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주었는데 해마다 필요한 종목은 더 늘어가고 있다.

아들은 2000년도 6월 하바드 동창 졸업 10주년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과거 3년간 학교에서는 2.1 Billion dollar를 모금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600 Million dollar가 더 들어와 하바드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지경이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바드는 자기 돈이 필요없다면서 지금부터는 자기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초등학교 교장이 우리 집으로 보낸 감사 카드에는 예산이 깎여서 traveling art teacher를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못하고 사는 우리가 멋적어졌다.

아들은 그 외에도 Boy Scout, Wildlife Organization, National Parks & Recreation, Habitat for Humanity Red Cross 등 열 손가락으로는 꼽을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기부금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의 주소가 동경이어서 우리 집을 연락처로 해 놓은 이유였는지 각계에서 고맙다는 감사패와 기념품(sweat shirts, T-shirts, mug와 calendar)등이 집으로 오는 것을 받고 상세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들은 나의 환갑 몇 달 전부터 큰 잔치를 해 주겠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수 없이 물었지만, 정말 엄마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같은 대답의 되풀이였다.

환갑 날 친구들로부터는 맛있는 점심과 케익을 대접받고 많은 선물(곰목걸이, 벽에 거는 아름다운 시가 담긴 액자, 돈 봉투등)들을 받았다. 딸로부터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마싸야지, European Facial, 가보지 안은 새 골프장의 18 hole round와 Dinner Theater Gift Certificate을 받았다.

아들로부터는 Scandinavia 여행과 두독한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장미 송이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 네 송이나 받았고, 출장을 가 있던 서울서 온 전화는 "Happy Birthday, Mom"에 이어, 엄마와 아빠를 honor하기 위하여 우리 모교인 서울의대에서 한 명, 문리대에서 한 명에게 일 년 간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나더러 교수님들께 연락을 하라고 했다.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콧마루가 시큰해 오는 것을 느꼈다. 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남편 오태요가 해야 할 일이고, 문리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김명자가 주어야 할 일이지, 아들이 하겠다고 부끄럽고 대견하면서도 고마운 맘을 안고 머리 숙여 뇌었다: "이렇게도 큰 환갑 선물을 주시고 아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금하면서 한국의 시가, 계모의 생활비, 친정 조카들의 학비등을 도와주어도 한도 끝도 없었고, 89년에 찾은 불쌍한 이복의 형제들 4명과 거기에 따른 수많은 조카들 도와주느라 평양을 다섯 번이나 드나들면서 돈, 약, 카메라, 옷, 카세트 플레이어등 두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느라, 생각은 있었지만 3년 전만 해도 내 모교에 기부하

는데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

아들은 아빠가 의사인 덕에 모든 것을 경제적인 필요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Need base) 하바드에 다니면서 한 푼의 장학금도 못 받았고, 명예 장학생으로 표창장만 받았었는데, 그래도 그 부자 모교가 고마워 많은 돈을 해마다 기부하는데, 나는 그 가난하던 시절에 3간이나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면제등의 혜택을 입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것도 않고 있으니 얼마나 대조적인 삶인가 말이다. 그나마 3년 전인가 함춘회관 설립비, 서울대 미주 동창회 백만불 기금과 서울대 Heartland 동창회 장학금으로 조금 낸 것으로써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서울대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들의 첫째 조건이었는데, 내가 이 글을 쓴 것을 알면 꾸중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Dr. 정 말씀처럼 내 아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부모를 키워준 대학과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 동안 남편과 같이 흥미가 있어 몇 시간 Judaism 공부를 했는데 기막힌 구절을 보게 되어 여기에 적어 본다. "If I am not for myself, who will be for me? When I am only for myself what am I? If not now when?" (Mishnah Avot 1:14)

끝으로 아들이 제공하는 장학금에 관계된 의대, 문리대 교수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정말로 내 모교는 창피할 정도로 장학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교는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도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필자 연락처 (402)493-2284

미국 유명 대학은 얼마나 기부금을 모이나?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증권시장의 외풍 속에서도 지난해 6월말로 끝난 2001 학년도 미국 대학 기부금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고 3월 22일자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유명대학의 지난해 1년간의 모금액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 ◇하버드대학 6억 8천 300만 달러
- ◇스탠퍼드대학 4억 6천 900만 달러
- ◇컬럼비아대학 3억 5천 900만 달러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신문 Website :

http://weekly.snu.ac.kr

아! 서울대학교 : 6.3세대의 회고

방준재 (의대 63입)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로 시작되는 교가를 불러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학을 입학한지 어언 4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가끔가다 부르는데 애국가처럼 이 노래만큼 가슴 뭉클한 노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애뜻함과 학창시절의 향수가 이 노래 한 곡에 다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회오(悔悟)가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세. 우리가 대학 입학했을 당시의 나이였습니다. 학문의 전당이고 인생의 황금기라는 대학, 그것도 전국의 준재들이 다 모여 11개 단과대학의 1만 2천명중의 한 명이라는 가슴 뭉클한 성취감과 기개도 필사 없이, 대학은 최루탄과 경찰의 곤봉과 함석헌옹의 흰 두루마기가 대학가를 팔락이던 소위 6.3세대의 전투장이었습니다. 정권,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그들의 사회 저항의식 속에 우리의 대학 시절이 유린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음의 낭만이랄까 자유 분방한 사고 세계를 형성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쳐 최루탄에 눈물 철철 흘리면서도 강의실로 향하던 우리의 대학 시절.

그때 우리는 국가 의식이 사회 참여 의식이 어렴풋이 싹트는 했지만 함춘원의 낭만이나 대학로의 어둠침침한 학림(學林)다방에서 베토벤의 장중한 교향곡을 들으며 고민 할 시간을 그들은 빼앗아 가고 방과후의 교정 잔디밭에서 「섬머세트 모음」의 단편들을, 드라마 센터의 연극들을, 그리고 한잔의 맥주에 젊음을 구가하던 독일 대학생들의 흥내도 그들은 앗아가고 첨예한 사회 의식 속에 무질서한 민주화 운동에 우리는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표방하는 대학 뺨지가 만원 시내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의 선망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가난에서 헤쳐 나오려던 개발시대의 저돌성과 그 저항 세력의 갈등 속에서, 잃은 것은 우리의 젊음의 구가였습니다. 정치 사회적 발전 과정의 필연성으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라고 당시의 선배들에게 묻고 싶은 충동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 그들은 왜 앗아갔는지 물어도 보고 싶습니다.

설익은 사고(思考)는 방황을 초래하고 명동을 배회하다 시작된 군의관 생활 3년은 직업적으로는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사나이로 태어나서”할 것을 했다고 국가에 대한 의무감도 의무감이지만 적나라하게 같이 생활 할 수 있었던 군(軍)동지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러도 좋았습니다.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상관을 모셔야 하는 위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아 재형성 과정 속에서 군의 존재가치와 자주 국방 개념과 국가에 대한 사랑의 당위성을 익히며 민족(民族)이라는 단어가 가슴으로 다가가 혈류에 용해되어 마치 공기 속의 산소를 의식 못하듯 삶의 일부로 지니오



1963년 4월18일의 대학신문

다 떠나온 조국, 그리고, 이민생활. 우리 대학 동문 7,000여 명이 살고 있다는 이 미국 두고 온 산하(山河)도 우리의 뿌리지만 서울대학이라는 한 울타리 속의 우리 동문들은 더욱 깊고 같은 뿌리와 동류의식 속에 아무런 결핍 없이 같이 나눌 이야기가 많을 듯 합니다.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자긍심(自矜心)을 영원히 간직하고 모교에 대한 사랑과 조국애를 갖으면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착근(着根)하여 먼 훗날 이 땅에 위대한 한인 사회 건설에도 우리 동문들이 같이 노력 할 때 우리대학의 이름은 역사의 한 장(章)을 장식 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 서울대학교! 우리 다 같이 교가라도 한 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서울대학교! 우리 다 같이 교가라도 한 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五月! 서울미대 68학번 다 모여라!

-30년만의 동창회 이 인선(미대 72년 졸업)



까맣게 잊고 살았던 대학동창 순옥에게서 어제 전화가 왔다. 시카고 근교에서 살고 있는 것을 20여 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도 연락이 끊어져 목소리도 모습도 가물가물하다. 단번에 아무 부담 없이 말을 놓고, “애! 그 동안 잘 있었니 그래?” 할 수 있는 동기동창. 글썽 30년만에 미대 동창이 모인다고 서울에 같이 가자는 전화였다. 한 학년이 70명도 못되는 적은 단과 대학인데다가 취향이 비슷하므로 더 마음이 통하고 결속력이 강할 수 있다.

“아니 5월 달이라니 제일 바쁜 달인데 어떻게 하나? 난 안되겠다.” 하고 끊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들떠버리는지, 머리 속에 궁리를 마치고도 전에 남편에게 말을 비쳤더니 2-3일간이라도 갔다 오라고 당장 허락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큰 비용을 들여 힘든 고국 나들이를 하는데 사흘이라니 안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더니 차츰 마음이 커져 결국 10일을 허락 해주었다. 막둥이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순순히 자기가 대신 일 할 테니 다녀오라고 한다. 여름 방학이라고. 와! 어린이 같이 동동 뛰었다. 그때부터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사는 동기동창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 10분마다 수없이 걸어 마침내 통화가 되었는데 의기가 단번에 투합이 되었다.

은희와 나는 시골 초등학교 동창이요, 대학도 동기동창인 특별한 인연이다. 그림 공부하는 화실도 같이 다녔다. 같이 입학시험을 치러놓고 시골집에 나 혼자 내려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결이었다. 전화벨이 울리는데 “저건 분명히 서울에서 오는 전화다.” 하는 예감이 들어서 막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과연 은희가 뜬 목소리로 “애 인선아 너도 합격, 나도 합격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의 뜨는 기쁨 아직도 느낄 것 같다. 내 생전 제일 마음 졸이고 기다렸던 소식, 믿을 수 없이 기뻐던 소식이었다. 그해 우리 과는 서울대에서도 제일 경쟁률이 높아서 13대 1쯤인가 했었기 때문에 낙방 안한 것이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다.

자랑과 권위의 상징이던 네모난 뺨지를 달고 시골 촌놈이 서울거리를 활보할 때의 기분을 누가 알아주랴만 4년은 엄법엄법 지나갔다. 그림공부 보다는 탄 데 한눈을 팔고 4년을 후딱 보낸 것은 지금도 후회막급이지만 그건 내 책임만은 아니라고 대학과정을 탓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너무 후한 점수로 우리를 타락케 한 교수님들의 책임이 절반이상이나니까.

미대는 우중충한 건물에 조금도 미대 같지 않던 분위기를 잡고 있었다. 건물마다 회색페인트 칠로 답답 무미한, 정말로 미적 감각을 짐식시킬 환경뿐이었다. 설새없이 깔깔대던 젊은 우리들, 제마다 품잡던 예비 예술가들의 몸에서 넘쳐나던 자신감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봄철마다 흠뻑 향내 내던 라일락꽃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고.

몇 년 전 파리에 가서 수도 없이 많은 미술관 박물관들을 딸과 함께 돌아보면서 “아 우리들은 얼마나 불쌍한 미술학도들이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 엄청난 분량의 예술품들과 그 넘쳐나는 예술 혼을 볼 때...우리들의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라고는 한 달이면 다 섭렵할 수 있는 빈약한 장서와 알량한 자료들.. 비교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영원한 작품들을 바로 앞에 놓고 마음대로 이젤을 펴놓고 하루종일 복사해 그려보는 그네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미술과는 영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는 국고를 축낸 주제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동기들 중에 끈질기게 한길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견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어야지. 아 지금은 어떻게들 변해있을까?

순옥이와 통화 후 한국에서 띄운 글들이 도착했다.

“68학번 서울미대 동창!

아직 연건동 시절을 기억하시는지요? 뼈꺼이는 목조계단 2층의 낙산 다방과 별나라 화방을 설마 잊어버리진 않았겠지요? 680**으로 시작하는 그대의 학번을 지워버리지는 않았어도, 학창을 떠난 지난 30여 년 동안 스스로를 지탱해온 일과 놀이, 혼례 그리고 일가를 이루고, 몇 번의 이삿짐을 꾸리면서 더러는 서랍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있던 빛 바랜 그 시절의 사진들... 가끔은 호젓한 시간에 꺼내보지는 않았는지요? 찢어버리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였겠지요. 혹은 연줄 끊어져서 어딘가에 걸려 있을 추억의 파편, 그 시절 끼고 다녔을 법한 두툼한 책갈피에 답작하니 박제된 채 누군가의 편지, 별써 이승을 하직할 뻔은 없는지... 30여 년 전의 공간을 향해서 그리움은 문으로 열립니다. 평소엔 근황을 알고 지내던 몇몇 벗들의 귀머리 하얗게 세어 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우리 기쁜 젊은 날 한 때를 추억하다가 문득 모두의 안위가 궁금해지는 마음 넘쳐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별써 지명을 넘어버린 안타까운 나이들이 더 늦기 전에,

— 후락 —

씩 근사한 시문 같은 동창의 편지를 읽으며 30년 전 일들이 비행기타고 내려다보는 땅의 가물 거름같이 느껴지고 자꾸 되돌아가고 싶어진다. 하나같이 재주가 비상한 우리들 중, 십 여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최근에 대학 학장이 된 이도 있고, 프랑스 박사학위를 딴 친구도 있고, 화가가 되어 해마다 전시회 여는 친구도 여럿 있고, 목사부인, 미국 변호사, 비즈니스 종사자, 가정주부, 동기끼리 결혼한 커플도 있다고 한다.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써보니 스물 몇 명 이름이 나왔다. 사람 기억 못하기로 유명한 내게 이 많은 이름이 살아 있다니 신기한 일이다.

이번에 30주년 기념으로 함께 전시회도 하고 친구들의 화실을 함께 돌아보는 등, 어릴 때처럼 함께 놀아 보려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다. 흐뭇한 일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 가슴 두근대며 기다려보고 내 젊은 날의 기쁨을 되살려보려고 한다. 이제 그때의 나보다 더 커버린 네 명의 자녀들에게 조금 멋 적기는 하지만..

내 생애에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던 서울 미대! 서울대학교! 아직도 감사하고 늘 자랑스럽다.

<필자 연락처 : (708)532-3203>

Ski에의 挑戰

한갑을 지나 스키전문강사 자격을 얻기까지

이 신 삼(농대 63일)

작년에 은퇴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회원권을 갖는 것과 평소엔 잘 다니던 Blue Mountain의 스키장에 계절입장권(season ticket)을 구입한 것이다. 주말 Golfer나 Skier가 가장 아쉬워하는 일 중의 하나가 주말 이외에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마음껏 golf를 치거나 ski를 타는 것이다. 마침내 내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기에 그동안 생각했던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는 주중에 야외운동을 즐긴다거나 정기휴가를 내어 golf 나 ski 여행을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년이 52주이기는 하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매주 야외운동을 나가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결정은 내게 작은 흥분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매일 전업 종사자가 일하듯이 늦은 가을까지 골프를 실컷 쳤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는 왕복 3시간의 거리인 스키장엘 일주일에 서너번씩 다니게 되었다. 골프와 스키를 비교해 보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승부게임을 하는 golf는 때로는 내게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고 또 혼자서는 즐길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 ski는 언제든지 타고 싶을 때는 혼자 즐길 수 있고 누구와도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해소에는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다.

스키장에서 uniform을 입고 집단으로 함께 연습하고 있는 "ski instructor" 나 "ski patrol"을 볼 때마다 참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런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스키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고 부러워 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스키장 계사관에 I. T. C. (Instructor Training Course)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문을 보았다. 좋은 기회다 싶어 스키학교에 가서 지원서 용지를 달라고 하니 용지가 다 떨어져 없다고 한다.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용지를 달라고 하니 또 없다고 한다. 무엇인가 반기지않는 눈치다. 동양인이다 60에 가까운 노인으로 보여 꺼리는 걸까 하고 생각하니 더욱 오기가 난다. 그래서 직접 그 본부에 가서 항의하듯 하여 간신히 용지를 받아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동양인이 Instructor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부터 스키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 맹연습이 시작되었다. 거의 매일 스키장에 출근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시험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시험 2주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하고 또한 피곤한 탓이었는지 넘어지면서 오른팔 손목을 다친 것이다. 손목이 퐁퐁붓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 손목에 금이 가서 6주의 진단과 함께 손등에서 팔꿈치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브스를 해준 것



1977년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산맥의 Val-luga峯(고도 2811m)에서의 필자.

이다. 통증도 문제이지만 참으로 난감한 것은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감사 자격증에 도전하여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를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나 그냥 포기해야하나 심한 갈등이 생겼다. 몇일간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번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다. 손목은 다쳤지만 다행히도 두 다리는 멀쩡하니 남은 시간 동안은 손을 쓰지않고 발로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힌다면 아마 시험에 응시해도 될 듯 싶었다. 담당의사는 만약 다시 넘어지거나 팔목을 다친다면 일년이상 기브스를 해야할 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우선 손목은 그냥 두고 팔꿈치만이라고 움직여야 겠기에 손장등의 딱기는 부분과 팔꿈치 부분의 기브스를 작은 톱으로 잘라 내버렸다.

시험일까지 거의 매일을 전혀 pole을 사용하지 않고 발 기술 개발에만 열심히 매달렸다.

드디어 시험날이 왔다. 이틀간을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험은 계속되었고 내가 가진 스키실력은 낱날이 들어내어 보였다. 부상당하여 기브스한 팔목은 스키북으로 감추고 시험에서 요무하는 각종 course들을 해 나갔다. 특별히 expert course(black double diamond)에서 pole 없이 parallel turn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지만 그 동안의 맹연습 덕분으로 간신히 해 낼 수 있었다. 추운 날씨였지만 내 얼굴과 잔등에는 긴장으로 땀에 젖었다.

16명의 응시자중 3명만 뽑는다는 이번 시험에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초조해서 입속이 다 까칠해졌다. 오후 4시가 넘어 모든 종목의 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하는데 동양인으로서 처음이라는 Blue Mountain Instructor에 당당히 합격을 한 것이다. I. T. C. Certification을 받은 후 스키복 속에 숨겨두었던 기브스한 팔을 보여주니 모두 놀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 동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Instructor들의 uniform 을 이제 내가 입고 스키를 배우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지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Instructor들에게는 초임이 시간당 \$8.50이고 스키장은 무료로 사용하며 uniform도 무료로 지급된다. 그리고 음식은 50% 할인 받으며 미국 전 지역의 스키장을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사실상 이런 대우는 내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정받으며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과, 두번째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좋아하는 운동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건강의 혜택도 받게 되는 기쁨, 그리고 세번째는 "ski bum"인 전문가 동료들과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지들이 생긴 기쁨이다. (professional expert가 되기 위하여 이들은 꾸준한 훈련을 받고있다).

어떤 친구가 한발을 들고 pole도 없이 가장 어려운 course를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며 ski에 대한 도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스키는 결코 안전한 운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나도 다친 경험 있고 또 스키장에서 가끔 사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부시게 하얀 눈으로 덮힌 해발 3000m의 웅장한 알프스의 정상에서 설경을 만끽하면서 속도를 마음껏 조절해가며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짜릿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라도 이 도전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난 어떤 67세 된 미국인 노부부가 은퇴 후 처음으로 스키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초심자로서 즐기지만 70세에는 I. T. C.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30대의 어떤 젊은 친구에게 스키를 권했더니 다리를 다치기가 쉬울텐데 무엇하러 배우냐고 말한다. 이 두 사람들의 다른 사고 방식 속에서 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지극히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어찌되었거나 은퇴 후 시작한 나의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도해 보면서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자꾸 입가에 웃음이 돈다.

연필잡자에게

한국축구 후원팀의 이름 "붉은 악마"(Red Devil)는 적절한가?

김은희(간호학과 50년 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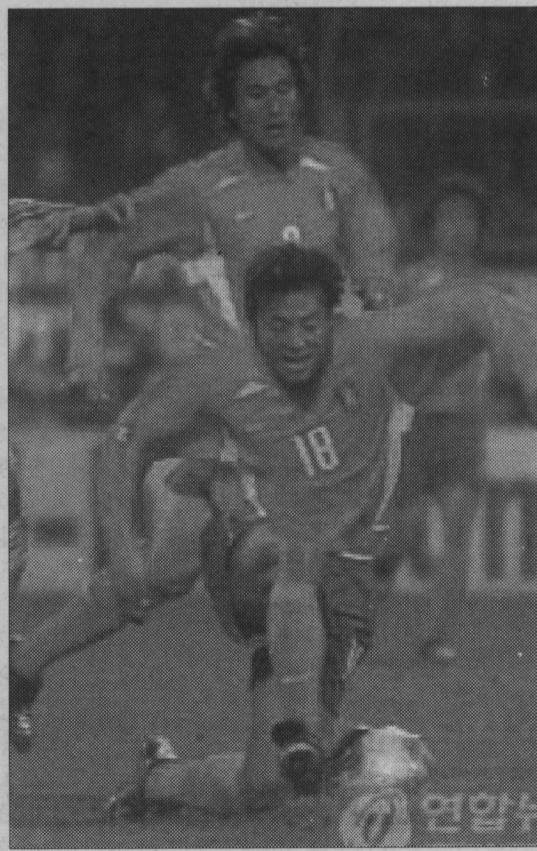


어젯밤에 LA의 KBS방송에서 한국축구가 세계 16강 축구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축구 주축국으로 성공하느냐? 가 중요하다고 한 월드컵 대회 준비위원장인 정몽준씨가 우리 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다.

축구시합 경기를 구경할 때마다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마음을 조리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후원 팀의 명칭인 "붉은 악마(Red Devil)"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국민이 열광적으로 응원함으로 "붉은 악마"는 온 국민의 대표명칭이며,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상징인 것이다. 이야기에 의하며 그 동안 축구 전통명칭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다는 말을 들었다.

붉은 악마는 귀여운 명칭이다. 그러나 악마왕 앞에 폄파다닥도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와는 너무 상반대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붉은 악마"는 하나님 앞에서 폄파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안하신다 믿는다.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팀! 자랑스런 한국 축구팀! 한국인인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바로 잡고, 새롭게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축구팀이 되어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가슴피고 힘차게, 기쁘게 힘껏 두 손 벌리고 외치고 싶다.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中國 정치 경제체제론」

또 하나의 逆說:

중국식 新自由主義의 가능성과 한계

최진백 <인문대 88년 졸,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과정>

편집자주: 필자는 勉菴선생의 후손으로 일찌기 國學의 연구에 뜻을 둔 先代의 뜻에 따라 일찌기 동양역사를 공부하였으며, 동서양 비교 정치론에 바탕을 두고 현대 중국 정치론을 전공 중이나, 이 글에서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停滯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래의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방향을 가능하는 데 指南이 될 수 있는, 현대 중국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과정과 전망을 논하고 있다.

< I > 序

중국은 아주 역설적인 나라이다. 우선 고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세계에까지 남아 성공적으로 근대국가를 성립 발전시켜온 나라이며, 근대 이전에 가장 발달된 관료제도를 고안해서 오랜 세월 제국을 유지해왔으나 서세동점의 근대적 격변속에서 혁명을 겪으며 바로 공산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나라이기도 했다. 또한 유교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유교문명을 거부하려고 했고 또 일반적으로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상 생활에서의 일반 중국인은 철저히 만치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바로 그 사회주의의 집권세력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장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러한 많은 역설적 사실 가운데에서도 9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놀라운데 2001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 GDP 성장이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평균 8%대를 유지하며 왔다. 이러한 높은 성장율은 사실 80년대부터 시작되어 89년을 포함한 2-3년을 제외하고는 20년 가까이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장기불황, 최근의 미국의 경기침체, 더욱 극단적인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등 세계 여타 많은 나라들의 주기적 경기순환과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면서 보낸 지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역

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이념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따라서 시장제도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더 잘 정비되어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부존 자원이 아주 풍부한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는 많지도 너무 많아서 한 중국학자가 지적 한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세계 4%의 GDP를 가지고 세계 4분의 1의 인구에 대한 기본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재 일반 중국인들에게 공산당의 정통성은 맑스주의나 모택동의 지도 이념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시장개혁이 가져다준 물질적 조건 개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II > 최근의 중국의 경제개혁

이러한 역설적 결과 보다 더욱 더 역설적인 것은 중국이 9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 냈던 경제개혁의 내용이다. 즉 90년대의 중국의 개혁은 세계의 흐름에 이끌려서 피치 못해 개혁을 수동적으로 진행해 왔다가보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아래에서 집권 공산당에 의해서 시장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다. 80년대 등소평 시대의 개혁이 시장경제와 국가계획 두 가지 모두에 같은 크기의 중요성을 두고 진행되었던 것이었다면 90년대의 개혁은 80년대와는 달리 완전 시장 화를 그 가장 큰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90년대의 중국을 80년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완전 시장화의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국영기업이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나름대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를 국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80년대에 많은 비 국영 기업들이 시장 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국영기업 우선 정책을 고집하였다. 사실 80년대

에 들어서서 비 국영 기업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던 많은 향진기업(鄉鎮企業) 역시 사영기업이 아니라 하급지방정부에서 관할하던 집단소유기업이었다.

따라서 80년대의 중국은 국영기업과 이들 하급지방정부의 집단소유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인 사회주의를 나름대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포기되고 국영기업은 완전 시장화를 위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1993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중국 국영기업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정리해고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들 국영기업의 정리해고는 엄밀하게는 여타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와 조금 달라서 우선 중국인들은 이를 실업이나 해고라고 하지 않고 시아강(下崗)이라 한다. 이는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정

실이다.

< III >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

이는 사회주의 중국의 근본적 제도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1949년 혁명 성공이후 중국은 공유제의 소유권 형식 자체가 사유제 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성립 시키기만 하면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공유제는 또한 높은 생산력을 근간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국영기업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생활보장제도였다.

선진 소유제로서의 국영기업이기에 때문에 국영기업은 생산효율성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였고 그 고용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 소유

으로 이루어냈다.

이후 중국 각지에는 투자의 열풍이 불어와 새로운 공장들이 각 지역에 경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중국은 자본이 아주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열풍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물론 각 지역의 지방관료들은 해외로부터 이러한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의 혜택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 변해와서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투자 대상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로 이전에 동남아시아로 향했던 국제투자의 주요한 흐름이 중국으로 급격히 선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 경제 쇠퇴와 중국의 경제는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영기업가들 역시 속속 등장하면서 점차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갔다.

해외자본과 사영기업가들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 등장하면서 공산당 자신을 포함해 이제 누구도 국영기업을 더 이상의 우수한 소유제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러한 역동적인 투자의 결과로서 이들 새로운 기업들과 기존의 국영기업들과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동안 생산 효율성보다는 고용 노동자들의 복지에만 충실했던 국영기업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수 없었고 결국 그 경영상태는 더욱 더 악화되어만 갔다. 이제 국유 기업은 더 이상 중국 집권층에게 사회주의 이념의 구현체도 아니고 단지 부담스럽고 복잡한 개혁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명목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이제 국유기업을 시장경쟁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려하기 보다는 여하히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결국 국영기업의 평생고용과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개혁대상이 되었고 중국의 국영기업은 기존의 많은 잉여 고용인원에 대한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엄청난 시아강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러시아나 동구권과 달리 사유화보다는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에 근본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하겠다.

<13면에 계속>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변창하는 중국 上海市에서의 필자.

리해고와 달리 정리대상 노동자가 기존기업에서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기업과 관계는 맺고 일정 기간 (보통 3년) 일정 수당을 지급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형식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온정주의적인 제도 같지만 그 수당이란 것도 사실 아주 적고 3년이 지나면 기존기업과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실업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기업형편이 좋아지면 시아강 노동자에게 다시 일자리가 주어지기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 역시 별로 없다. 이러한 시아강 노동자가 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늘어나더니 98년 893만 명, 99년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가 얼마나 정말히 작성되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정을 진행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

제도로서 국영기업이 이루어야 할 德目으로서 받아 들여졌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평생직장의 원리가 자리잡게 되었고 학교에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복지시설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개혁과정속에서 이러한 공유제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부정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된 것이 90년대 초반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었다. 사실 이 시점은 중국으로서는 89년 북경 천안문사태가 있는 직후로서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화되어가던 시점이었지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은 중국 집권층에게 사회주의체제와 계획경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의식하에 중국은 등소평이 1992년에 80년대 개혁개방의 상징인 심천(深圳) 경제특별지구를 방문하여 완전시장화 예로의 정치적 국면전환을 성공적

중국의 新自由主義

<12면에서 계속>

IV) 신자유주의의 그 역설적인 선택

많은 중국 연구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분명 중국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리라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사회적 파장은 없이 지나왔다. 물론 중국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들이 없지는 않았지만(특히 올해 3월의 따칭(大慶)지역의 대규모 노동자 시위) 대부분 경제보상 문제에 한정된 비정치적 대응들이 이들 집단 행동에 주류를 이루어왔다. 사안이 이같이 아주 민감했던 것만큼 중국 당국도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의 국영기업 개혁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러한 급격한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중국 집권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국영개혁의 방식은 낮은 복지비용 지출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이루었던 한국과 일본의 재벌방식의 모방이었다. 동시에 이들 한국과 일본의 재벌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강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후발 경제발전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중국은 생각하였다. 당시 중국은 나름대로 이들 국가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들 아시아의 후발 개발 국가(Late Developmental State)의 사례들이 탈 사회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판단하였다. 후발 개발 국가들이란 서구 역사상 독일과 소련 등 후발 산업화 국가들의 경우 영국과 달리 자원의 시장적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한정된 사회적 부의 배분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특정 산업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룬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우선 그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런 강한 국가들의 개인 관료들은 국가의 힘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은 정비된 관료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물론 중국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이들 경제발전의 사례들이 모두 민주적 체제와 상관없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었다.**

97년 9월에 발표된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방안이었던 "큰 국영기업은 직접 행하고 작은 국영기업은 풀어준다"는 내용 면에서는 사실 큰 규모의 국영기업을 국가의

선별적 금융지원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국식의 재벌로 육성하고 나머지 작은 국영기업들은 민영화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97년 후반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서 이들 계획은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폐기처분되었다. 이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미국식의 완전 시장화였다. 이때부터 중국정부는 가능하면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 하지 않고 단지 거시적 정책운영에 집중하면서 자율적 시장원리의 작동에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맡기려고 노력해 왔다. 금융부분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 수단이 아니며 시장의 논리에 따른 수익운영이 요구되었고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출 못지 않게 경제 발전을 위해 내수가 중요시되어 서부지역 대개발이 추진되었고 해외 직접 투자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각종 제도적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급기야 중국은 2001년 1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된다. 사실 중국의 WTO가입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중국은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나름대로의 낮은 부가가치의 제조업 분야(섬유나 家電)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높은 부가가치의 제조업분야(자동차나 반도체)나 서비스산업 그리고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가 상당기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언뜻 생각해보면 중국 으로서는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존중하는 제스처로서 WTO에 가입 신청만 해 놓고 가입하지 않은 채 취약한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저가 생산품들이 현재 세계시장에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서둘러 WTO에 가입하려고 무척 노력하였고 세계 모두 그 진실성은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다자적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서 해마다 미국과 쌍무적으로 최혜국 대우 문제를 협의해야하고 그 때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 으로서는 계속해서 자신심을 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단지 자신심 때문에 자신이 믿는 근본적인 국가이익을 포기하

는 경우는 사실 없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후발 경제 개발의 논리에 입각한 한국과 일본식의 국가개입에 의거해서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대신에 중국이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 것이다. 사실 내용 면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의 경제개혁 방식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식 신자유주의란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예외 없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창출이 유도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해 가는 경제 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거의 무시되게 되고 결국 이는 공산주의 이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제운영 방식이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개혁이 바로 공산당에 의한 신 자유주의식 개혁이니, 이 얼마나 역설적 사실인가?

<V> 새로운 국가의 성격

이러한 경제운영의 원리에 맞추어 국가의 성격도 이제 미국식의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의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즉 경제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 국가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90년대에 많은 경제관련 법률들이 마련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유기업 개혁의 법적인 근거인 회사법과 파산법,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해고 노동자를 법적 보호를 위한 노동법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입법노력들이 "법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기 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한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에 가장 큰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시장경제를 위한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효율적 시장작동을 위한 많은 국가의 규제관련 국가기관들이 만들어져 시장질서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가짜 상품을 사게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규제장치의 활발한 역할로 중국에서 가짜 상품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게 되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효성을 의문시 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반부패 투쟁을 통해서 관료들의 경제관련 부패행위 역시 차단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장경제 하에서의 규제국가의 성격이 현재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정치 경제적 조건변화에 따른 집권 공산당의 새로운 자리 매김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2001년에 강태민 국가주석에 의해서 발표된 **중국 공산당 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이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노동자와 농민의 무산자만을 대표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선진생산세력, 선진문화,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중 정당으로서의 자기변신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체성 재확립의 연장에서 강태민(江澤民) 주석은 중국공산당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시영기업의 기업가들 역시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상당한 반대세력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들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시장개혁에 따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지도정당으로서의 자기 변신을 암시해 주고 있다.

<VI> 중국정치체제의 민주화 전망

관심을 끄는 문제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변화가 더욱 발전하여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징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어디에서도 확인 할 수 없다. 사실 공산당에 사적 자본가들의 입장을 허락한다고 해도 중국 공산당의 기존 운영 방식인 전통적인 레닌주의 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3개 대표이론은 시장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유능한 사적 자본가들을 정치적으로 공산당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자신들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서 공산당 일당 독재의 원칙을 견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껏 어떤 정치적 도전도 좌시하지 않았다. 멀리는 89년 천안문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는 기공 수련단체로서 중국 민중의 상당한 반항을 일으키다가 정부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법륜공(法輪功)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법륜공이 현재 중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도 아니며 그들이 반드시 반공산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묵인하며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그토록 심한 탄압을 한 것은 89년 천안문 사태이후 중국 집권자들이 얼마나 자율적인 사회적 세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또한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노동조합만을 인정하고 여타 많은 독립노동조합 설립시도들을 원천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시장질서는 다른 어떤 국가의 경우 보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공산당 일당체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도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 공산당은 맑스적인 정치경제이념은 분명 포기했지만 레닌주의의 권력운용방식은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역설의 나라 중국의 오늘날의 단면은 바로 이러한 레닌식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역설적 체제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 단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민주주의 조건 없이도 발전되어 갈 수 있음을 중국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역설이 장기적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사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시장개혁이 궁극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정치체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믿을 아래에서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유지(Constructive Engagement)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믿음에 회의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공식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명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는 분명 성급한 선언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달리 보면 중국의 시장개혁이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국이 나름대로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가 오히려 일반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해서 중국을 더욱더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내리기가 그리 쉽사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해진 것인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외면하면서 시장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가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라는 사실이다.

<14면에 계속>

故國을 향한 提言

親日清算은 새 規範으로

장동만 <문리대 63졸>

2차 대전 후 불라서는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 2만여 명을 처형 투옥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태리는 80년 대 깨끗한 손 작전 때 부정 부패한 공무원 기업을 2백여 명을 투옥 시키고, 그 중 20여 명은 자살 또는 처단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두 경우 단죄 대상이 모두 반

민족 또는 부정부패 행각을 저지른 그 당사자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역사가 바로 썼으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구성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건 그들을 처단 단죄 했어야 했다. 그리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 허나, 그때 우리 조상들은 또 한번 역사에 우



(愚)를 범해 친일청산은 유아 무야 되고 말았었다.

그로부터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이제,

국회 진보 소장과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족정기모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7백 8명)을 새로이 작성 공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독립 운동 또는 민족 지도자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역사는 바로 쓰여져야 하고 또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진실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당사자들 모두가 이미 땅 속에 묻혀 있는 이제, 그 이름을 새삼 거명하고 그 행각을 규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인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은, 오늘 우리 모습을 되살피고 또 내일 갈 길을

더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친일 청산 문제는 죽은 자에 대한 새삼스런 부관참시(剖棺斬屍)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얻는 것 없는 한(恨) 풀이 일뿐이다. 그리고 또 그 핏줄들에 대한 손가락질에 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곧 시대를 역행하는 연좌제(連坐制)이기 때문이다. 흑인들을 돈으로 사고 팔고 동물 같이 부려 먹은 백인 조상들의 죄업(罪業)을 그 백인 후손들에게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의 회귀 집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어야 한다. 역사는 진실대로 기술하되 그 죄과는 덮어 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날 한국적 상황이 만들어 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숭한 반민족 반국가 행위들을 우리 민중들이 두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하고 규탄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때 그때 이를 가차 없이 처형 청산 하자.

그리해서 이제 부터라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움으로써,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은 하나 같이 모두 몰락 하는가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자손들은 거개가 평평 거리며 살아 남아 지금까지도 사회 지배 계층을 형성하는 잘못된 역사의 악순환을 우리 민중들의 손으로 끊자. 이 길만이 이제 뒤늦게나마 친일 청산을 참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과 독립운동 참가자들의 재판을 보도한 1919년 5월의 동아일보.

中國의 신자유주의

<13면서 계속>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의 총통 선거 때마다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중국체제가 안고있는 취약성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는 96년과 2000년에 두 번의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두 번 모두 대만의 독립이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의 독립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미사일을 대만주변의 바다에 발사했는데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한번은 국민당이지만 대만 인을 대표하는 이등휘(李登輝)를 그리고 한번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진수권(陳水扁)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미사일 공격은 효과도 의문스럽고 국제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의 국제질서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있는 중국으로서는 실로 격에 맞지 않는 대외정책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중국체제가 갖고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대만의 총통선거는 독립이 문제이기 가장 중요한 이슈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였다. 사실 미국도 1972년 키신저와 주은래(周恩來)의 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만이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고 그래서 대만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민주적으로 선택한다면 중국은 어떤 수단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게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집권자들은 중국의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요구를 계속해서 해오면 이를 무작정 계속해서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 중국의 레닌식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결코 민주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시장경제는 단

기적으로 비민주적 정치제도와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장기적으로도 비민주적 정치질서와 함께 지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 민주화된 정치체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현 체제는 시장경제보다도 정치체제의 보편적 원리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문제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언제 그 변혁의 물결이 오고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 것이냐 일 뿐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진행과정은 마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큰 사회적 격변 없이 순탄하게 도입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정치 집권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자발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사회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집권층이 굴복하면서 민주화된 경우 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그 과정도 비교적 순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2002년은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중국의 정치

적 변화를 가능하게 될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적 주기는 5년을 단위로 하여 움직이는데 이는 중국 권력의 궁극적 원천인 공산당의 전국 대표대회가 5년마다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지도부가 구성되고 이어서 이러한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서 국가 주석이 선출된다. 그런데 바로 올해 9월에 제 16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강택민을 포함한 중국 현 지도층은 당 지도부에서 상당부분 물러나 (70세의 나이 제한 때문에) 호금도(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의 지도자들로 대체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신세대 지도층에 의해서 향후 중국의 정치적 틀이 다시 짜여질 것이다.

물론 현재 이들 신세대 지도층의 정치적 성향이 현 지도층의 그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드러난 점은 그다지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어떤 즉각적인 정치변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그들의 전임자들과 다른 역사적 경험과 상이한 세계관을 가지

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들이 실제 정치를 담당해 보면서 서서히 어떠한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국 시민들의 광범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않고 이들이 이러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계속 거부하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고집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선은 이들 신세대 지도층에게 정치적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9월의 전국 대표대회가 단순한 인물들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중국정치체제의 전환점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기대해 본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일 지는 모르나 역설의 나라 중국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단지 역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 한다.

< 필자 연락처 : jchoi5@midway.uchicago.edu >

SNUA OPINION LEADER

유전자로 우리 민족 뿌리 찾는다

지난해 12월 모교 의대 李弘揆 교수가 「유전자로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당노병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유전자에 관심을 갖게 된 李교수로부터 한국인의 조상이 인류의 기원지인 아프리카를 떠나 어떤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유전과 진화, 그리고 분자시계

유전적 소질(체질)이 병의 발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된 배경이다. 이 20세기 최대의 과학적 성과가 완성되어 우리는 유전자의학, 게놈의학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구성(체질)을 알아 치료에 적용한다는 생각은 사실 조선말기의 李濟馬가 주창한 사상의학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체질은 그 환경에 적응된 결과이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은 어떠한 환경에서 진화되었는가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유전학과 진화론을 기본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또 그 부모는 그들의 부모를 닮는다. 이것이 유전의 기본 개념이다. 자손이 생기는 과정은 아버지에서 온 정자와 어머니에서 온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시작되는데, 이 복제과정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성인으로 형성될 때까지 오류 없이 진행되게 된다. 그 유전정보는 46개의 염색체에 나뉘어 있는 4가지 DNA염기 30억 개의 서열 속에 있는데, 이 염기서열의 변이에 의하여 생명체의 기능이 달라지고, 환경에 적응이 된 것이면 선택된다는 것은 새로 정립된 진화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생명현상의 이해에 있어 후에 이야기할 미토콘드리아와(생명 에너지 문제), 그 유전체(mtDNA),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복잡성(complex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아무러나 종이 다르면 염기서열도 달라, 원숭이의 염기서열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 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염기서열의 차이도 큰데, 진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클수록 진화가 일어난 시간이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주커칸들과 풀링이 제시한 「분자시계」의 개념은 지질학적으로 얻어진 자료들을 대비함으로써 확립돼 있다.

인류의 진화 : 아프리카 기원설

찰스 다윈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인류가 약 6백만년 전 침팬지와 공통조상으로부터 분지되어 아르디피테쿠

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신, Homo habilis를 거쳐 Homo erectus가 나와 3만년 전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여 년 전까지 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인을 거쳐 현대 인류가 각 지역에서 진화했을 것이라는 소위 「상델리아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트링거와 윌슨 등에 의해 현대 인류가 약 15만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나타난 후, 그 후손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모든 인류의 부모가 되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했다. 이후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크로마뇽인)에 의하여 대체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대개 받아들이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같은 것으로, 생명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공장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수억년 전 무산소로 에너지를 만들던 어떤 미생물이 유산소호흡을 하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 공생을 하게 된 생명체의 단위인데, 자체내에 DNA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있어서, 핵 DNA와 달리 mtDNA는 난자를 통해 모계로만 유전된다. 또 mtDNA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커서 친자감별에 쓰이는데, 세계 각처 사람들의 mtDNA를 조사하여 분자시계에 비추어 보면 약 15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에서 모두 나뉘어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미토콘드리아 이브).

한편 성염색체 Y가 있으면 남자가 되고, XX면 여자가 된다. 이 Y염색체에는 특정 DNA서열이 기생하듯 들어 있는데, mtDNA에서처럼 그 변이를 분석한 결과 인류의 남자 원형은 약 5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인류의 이동도를 뉴욕 타임스가 게재한 적이 있는데, 필자가 고친 것을 신동아 1월호나 과학동아(dongascience.com/home)에서 볼 수 있다.

더 위로 올라가 mtDNA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류들 사이에는 8개의 염기서열 차이를, 네안데르탈인들 사이에는 27개, 유인원들 사이에는 55개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로부터 인류는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약 60만년 전에 나뉘었다고 계산되고, 아프리카에 있던 네안데르탈인의 일부가 유럽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멸종하고,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현대 인류의 부모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한민족의 기원 : 두 가지 뿌리

아프리카에 있던 네안데르탈인에서 현대 인류의 조상이 나왔고, 이들이 세계 각처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왔는가? 카발리-스포르자 교수는 1988년 미국 과학원회보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차이와 유전자의 차이로 전세계인을 분류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티벳인, 몽골인들은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묶고, 중국 남부인들은 캄보디아,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들과 함께 묶었다. 일본인의 mtDNA 유전형 분포 패턴을 보면 약 12만년 전에

분지되는 두개의 클러스트(20%와 80%)가 있고, 단국대 김 옥 교수의 Y염색체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약 30%는 남부 아시아인들의 유전형을 가지고, 70%는 북부 아시아인이다. 한민족의 뿌리는 두 갈래인 것이다.

이 두 그룹의 형성은 2가지 경로로 이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하나는 인도양과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동으로 이동하는 미안마 경로이다. 중국에 현 인류가 정착한 것을 약 6~7만년 전으로 본다면 이즈음 한반도에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한편 Gm이라는 혈청 단백질형의 특정형은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사는 부리아트인에게서 가장 고밀도로 존재하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감소한다. 이 분포는 여기에서 이 유전특성이 발생하고,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동하며 유전자 풀에 섞여 들어갔음을 시사한다(시베리아 경로).

북방 아시아인의 한반도 이동

약 1만5천년 전부터 약 3천년간 지구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여 빙하가 녹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때 동북아시아, 특히 바이칼 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해 원주민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상상이 돼버렸다. 미국 NASA의 위성사진(visibleearth.nasa.gov)으로 보면 중국동부에 빙하의 퇴적물이 쌓인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면모는 부리아트인이나 미국 인디언과 유사한데, 북방 아시아인의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북부 중국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정착한 것이 1만1천년 전이므로, 한민족도 역시 빙하가 녹으면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마지막 빙하기에 대한 책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몽골 지역과 시베리아를 잇는 광대한 지역이 마지막 빙하기에 빙하로 덮이거나 광대한 영구동토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 여건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장벽이 되었을 것임을 쉽게 납득하게 한다.

바이칼 호에 대한 연구 있어야

바이칼 호는 유럽의 중소국가 벨기에 크기의, 최대심도 1천7백42m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데, 무려 1천2백종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전적으로 독특한 동물들이 여기서만(진화하여) 살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바이칼 호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 어느 곳의 문화와도 다른 독특하고 복잡한 문화가 발달했는지 수수께끼라고 하고 있다. 이곳에서 문화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면, 에스키모인 같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이칼 호수처럼 곳곳에 온천이 나오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李 弘 揆

- 1968년 모교 의대 졸업
- 1971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77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5년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1999~2000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 2000년 아시아 분자당뇨병학회 회장
- 현재 모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한편 현재 흑해에서는 미국과 불가리아의 합동 탐사팀이 타이타닉호를 건져낸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의 지휘아래, 대홍수 이전 이 지역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보다 앞선 문명이 존재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노아의 방주를 찾고 있는데, 필자는 1만5천년 전 바이칼 호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호수와 문화가 물에 잠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칼 호수의 물이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맑고, 그 양이 세계에 있는 모든 담수의 6분의 1이나 되고,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강들의 수량으로 호수를 채우려면 무려 4백년이 걸린다니까 말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이칼 호가 잠기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북부 아시아인의 조상이 간빙기에 이곳으로 이동했다가 5~6만년을 머물면서 추위에 이기는 특성을 얻게 되고, 남부 아시아인들이 6~7만년 전 미안마 통로를 거쳐 동아시아로 와서 살고 있다가 상전이 뻗해 되는 혼란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었다고 했을 때, 해빙기로 길이 열린 북부 아시아인들이 남으로 이동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것으로 12만년 전 이루어진 일본인의 두 클러스터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격리된 지역에서 장기간 살면서 진화해야만 그 지역에 적응된 형질을 얻을 수 있는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적응된 것으로 해석되는 북부 아시아인들의 특징도 설명이 된다. 나아가 부리아트, 몽골인, 아메리카 인디언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유사성과 Gm형의 분포 패턴도 북부 아시아인의 특성이 바이칼 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직 하나의 가설이다. 증거를 얻기 위해 동북아시아인에 대한 자세한 유전자 풀의 분석이 있어야 하고, 바이칼 호에 대한 자료의 분석과 탐사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남의 손에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인류의 진화(Evolution)와 질병의 역학(Epidemiology)을 연결하는 EVE 계획(미토콘드리아를 중시하는 암시를 포함하여)과 이번 7월 바이칼 호반 이르크츠크에서 가지려고 하는 조그마한 학술모임은 필자에게 한가지 일이라 할 수 있다.

安樂死에 햇볕이나 벼락이나?

오리건 안락사에 대처하는 상반된 兩黨정책

김 일 훈 <의대 53년 졸>

(I) 안락사와 다수결

9.11 사태는 미국의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으나, 오리건의 안樂死法(DWDA=Death With Dignity Act)에 대한 공화당정권의 강경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정부의 Ashcroft 법무장관은 오리건 안락사를 방지했던 종전의 민주당정책을 반복하고, 오리건주에서 허용하는 PAS (Physician-assisted suicide, 치료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보조자살)가 마치 "의료계의 악의 축"인양 현행법으로 강력 단속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 전에 소개한바있는 오리건주 안락사(참조: 본보 2001년 1월)를 소급해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본 다음 양당의 상반된 정책을 논하고자한다.

미국에서 PAS 허용을 위한 첫 주민투표는 1991년 11월에 워싱턴주에서 실시했으나, 찬성 46%와 반대 54%로 PAS실현을 보지 못했다. 1년 후 캘리포니아에서도 같은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47%대 53%로 역시 실패했다.

그러나 1994년 오리건주에서는 주민투표에서 52%대 48%로 찬성을 얻어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소한 표차로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유일한 안락사주가 되었는데 위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2주는 PAS 금지 주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주를 포함한 47개 주에서는 안락사행위를 2급 살인죄라는 법으로 처벌하고있다.

말하자면 투표용지종이 몇장 차이로 동일사건(PAS)에 관여한 인간(의사)을 오리건주는 정상인으로, 나머지 47개 주에서는 살인자로 다스린다.

선한 자와 살인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주에 따라 정반대로 다스리는 복합적이고도 이율배반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민주국가 울타리 내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그래서 미국은 다수국민의 뜻을 받드는 합중국(合衆國)이며, 국가와 다름없는 각주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합주국(合州國)인 것이다. (참조: 본보 2001년 8월호 "미국은 합중국이며 합주국이다")

(II) 클린턴 정부의 오리건주 안락사 묵인

오리건주에서는 1997년 PAS를 허용하는 안락사법안이 정식 법제화되어 세계최초의 안락사합법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연방약품통제국)의 Thomas Constantine국장은 다수국민의 PAS반대여론을 의식하고 "환자의 안락사를 방조하기 위해 치사량의 약처방을 하는 오리건주 의사들은 연방의 통제약품법(CSA=Controlled Substance Act)을 위반함으로써, 약처방면허증을 잃게될 것이다"고 경고했다(11/5/97).

그러나 DEA국장의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 Reno 여사는 반년간 심사숙고 끝에 "오리건주의 안락사법(DWDA)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DEA국장의 발언을 번복했다. PAS자체에는 반대했던 클린턴 대통령과 Reno장관은 현행 통제약품법의 모호성과, 법의 남용으로 오는 일반 의사들의 피해 및 의료행위제한을 우려하는 AMA의 반발, 그리고 장차 있을 법원소송에서 승산이 적다는 것 등을 참작한 나머지 현재의 CSA로는 DWDA를 단속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Reno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는 AMA는 의사들이 진통치료를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고통완화촉진법"(Pain Relief Promotion Act)을 강력 추진하여 하원을 통과시켰다. (참조: 필자의 책자 "안락사와 존엄사"에서 필자는 AMA서 추진한 이 법을 두고 "안락사를 견제하는 햇볕법"이라 논했음).

이 법의 취지는 고통 때문에 빨리 죽기를 바라는 종말환자에게 자유로운 진통제사용으로 환자를 도움으로서 PAS를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즉 AMA는 안락사견제를 햇볕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며, 클린턴 민주당 정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조했었다.

(III) 오리건 안락사는 네덜란드와 다르다

클린턴 정부에서 PAS를 반대하면서도 오리건의 DWDA를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면에는, DWDA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있겠다.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안락사

가 법제화되어 세계최초의 안락사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위한 여러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의사들은 처벌을 모면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몇천 건이나 되는 대규모로 시행되어왔고, 여기에 비해 오리건주의 안락사는 연간 20여건에 불과한 소규모였다.

오리건주에서 허용되어있는 안락사는 PAS(의사가 종말환자에게 치사량의 약 처방만 해주는 자살방조행위)라고 부르는 간접적 안락사며,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Euthanasia(직접적 안락사= 의사가 직접 치사량의 약을 환자에게 투약도 가능함)와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린다.

네덜란드는 1990년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들이 직접간접으로 자살 방조한 건수가 8,681건이며 이 중 직접 치사량투약해서 사망시킨 환자가 2,300명으로 보고되었다.

1999년에는 2,216건을 직접 사망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보고 안된 경우가 이 보다 2배 이상되리라 추정된다.

여기에 비해 오리건주에서 PAS가 시행된 건수는 미미하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에 PAS로 사망한 총수는 91명에 불과하다(참조: 표 1).

그리고 PAS를 원했던 주된 이유가 고통 외에도 두려움과 주변

에 대한 도움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날에는, 오리건 PAS 사망자 수도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사실이지 지난해(2001년)에는 약처방 받은 말기환자 44명중 실제 약 복용하고서 사망 보고된 건수는 21명에 불과하다. (참조: 표 1의 *).

동통완화촉진법이 오리건 PAS에 대처하는 AMA의 햇볕정책이며, 이 민주적인 정책을 민주당정권이 지지했고 Reno법무장관이 무언의 협조를 했던 것이다.

(IV) 오리건 PAS는 미국내의 "악의 축"인가?

민주당이 몰러나고 공화당이 집권하게됨으로서 오리건의 PAS가 다시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부시 정부는 오리건주의 PAS를 미국내의 "악의 축"이라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9.11 사태이후 부시정부의 Ashcroft 법무장관은 전직장관(민주당의 Reno 여사)의 결정을 무시하고, DEA로 하여금 PAS를 위해 치사량의 약처방하는 오리건주 의사들의 약처방 면허증을 박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오리건 주정부의 실무자는 이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Myers는 즉시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이 명령의 적법성에 관해 법원결정이

itzhaber는 "연방정부는 전례 없이 주 정부의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려한다"고 비난했다.

Ashcroft의 조치에 대한 AMA 신임회장 Dr. Coble의 반응은 더욱 사려 깊은바가 있다.

그는 정부의도와 같이 PAS를 반대하는 AMA의 뜻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일반의사들의 진통제 사용을 조사하는 DEA의 지나친 수법은 이미 정평이 나있고, 이러한 단속방법은 의사들에게 지극히 부담스럽고도 위협적이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고통문제는 가장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으로 함부로 아무나 평가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처방용량이 적법이고 불법이나 하는 명백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님으로 믿을 수 있는 조사결과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Dr. Coble은 구체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사건을 들었다.

즉 아픔으로 고생하는 한 노인에게 진통제치료를 제대로(충분히)하지 않음으로서, 마약상용자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1백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한 사건이다.

불충분한 치료와 지나친 치료사이에 분간이 뚜렷하지 않음으로서, 여기서 항상 의사만이 피해 받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AMA 회장의 말은 대수롭지 않

표 1: 3년간 오리건주서 PAS시행과 관련된 통계 (의사가 치사량 약처방한 경우)

종목	1998 -	1999 -	2000 -	2001 -	- 전체
PAS로 사망 보고된 수	16	27	27	*21	91
치사량의 약 처방했다고 보고된 수	24	33	39	*44	140
의사 감시 아래 환자가 치사량 약복용한 경우	8	16	14		

(주: 2000년도에 PAS 사망으로 보고된 환자는 27명이며, 그중 5명(19%)만이 정신감정을 받았다.)

에 주는 부담감등이다. (참조: 표 2).

이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AMA

날 때까지 명령집행보류"를 요청했으며 연방법원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

표 2: 환자가 PAS 요청한 이유

환자가 PAS 요청한 이유	1998 -	1999 -	2000	전체
가족과 주변에 부담 주는 것이 두려워	2	7	17	26
자생능력(정신적) 상실이 두려워	12	21	25	58
육체적 조절능력 상실이 두려워	9	16	21	46

서 추진한 동통완화촉진법으로 진정제와 진통제를 재량껏 사용함으로써 환자를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남은 가족에 대한 부담도 현재의 회회에 계류중인 호스피스 보조법으로 덜어줄 것이 기대된다.

표 1에서 보듯이 지난 4년간 치사량의 약처방을 얻은 환자 140명 가운데서 49명(140-91=49명)은 생각을 바꾸어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두려움과 부담

을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Ashcroft는 오리건주 의사회장에게도 서한을 보내어 "자기의 뜻하는 바는 PAS 단속에 있으며, 일반의사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사용을 종전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오리건의사회는 그의 말이 몹시 독선적이라고 평했으며 부정적으로만 받아 드렸다.

의사출신 오리건주지사 Dr.

은 오리건주 DWDA를 다스리는 길은 AMA가 추진한 "고통완화법"이라는 햇볕정책을 넓힘으로서, 고통에 못이겨 PAS를 원하는 환자를 도와서 PAS를 막자는 차원 높은 뜻을 내포하고있다고 하겠다. 진통완화치료 전문가인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Dr. Pan 교수는 "현재 오리건주에서 PAS를 원하는 환자수가 얼마 되지 않음으로, 진통과 진정제 보급으로 장차 오리건주의 누구도 PAS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정부는 세계초강대국의 국방력을 총동원해서 후진지역의 "악의 축"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미국의료계의 "악의 축"이라 할 오리건주의 DWDA에도 적용하려하고 있다. 클린턴과 Reno의 민주당정부에서 택한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다. <17면에 계속>

미국議會의 성조기 販買事業

장상길 <약대 60년 입>



날 24시간동안 7개의 국기계양대에서 대략 1분에 7개의 성조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 국기사무소가 이를 위해서 쓰는 인건비는 년 30만\$정도라니 꽤 돈이 남은 장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슨 통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기에 대해서 미국사람들이 표시하는 친근감, 애



정 또는 존경심 같은 것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욱 짙고 다양한 것 같다. 이름 붙은 날이면 어느 마을 이고 행해지는 퍼레이드에서는 크기 작은 성조기가 물결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경기 특히 야구경기 같은 것을 보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도열하고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경기장 가장 높은 곳에서 팔러이는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집 앞에도 성조기를 내건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는 어느 복덕방

에서는 독립기념일이면 집집의 잔디밭 앞에 조그만 성조기를 가져다가 꽂아놓고 있다. 이것을 벌써 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조기의 별(star)과 줄줄(tripe)의 모양을 이용해 옷을 디자인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 입장하는 미국팀의 복장을 보니, 성조기 모양을 이용해 디자인한 옷을 입고 行進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기는 엄연히 국가의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것임은 어느 나라나 다름이 없다. 자기 나라 국가가 높은 계양대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새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오랜 역사를 가진 韓國이나 中國 또는 日本의 국민들의 느끼는 국가에 대한 그것과는

꽤 다른 것 일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몇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 代에 또는 많은 한국인들처럼 당대에 미국의 시민이 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경건해지는 것은, 美國의 국기가 국민을 하나로 묶는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기가 올려질 때 눈물을 펄펄 쏟는 미국의 선수들을 볼 때면 이들이 반드시 個人的 영광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기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도 또 흔히 볼 수 있다. 데모를 하면서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부류들도 가끔 볼 수 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는 모양이다.

얼마 전 미국의 의회에서는 국기를 훼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憲法에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은 이것이 可視的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50개 州 중 2/3가 이를 州의회에서 비준해야 하므로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立法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다. 그들은 국기를 태우는 것도 “表現의 自由”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야기가 빛나갔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한’ 국기를 즐겨 찾는 것은 이들의 古物을 좋아하는 습성과도 무관치 않다. 고물이라면 한국에서는 쓰고 버리는 것이지만 이들은 antique라는 이름을 붙여 수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藥師들 중에는 옛날에 쓰던 약병이나 약국에서 쓰던 기구들, 심지어는 약국의 약장같은 것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사람들 중에도 티스푼이나 접시 같은 것은 물론이고, 어린애들은 야구선수의 얼굴이 인쇄된 베이스 볼 카드같은 것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에 비하면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했던 증거가 있는 국기는 아주 좋은 수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가 오래 된 나라인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야 비로소 옛것을 찾아내어 쓸고 닦아서 보존하는 것을 보는데, 불과 200년밖에 안된 나라에서 일부러 歷史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국회의사당에 태극기를 올렸다가 판매해 보면 어떻게?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는 국기사무고(Flag office)라는 부서가 있다. 물론 이곳에서는 국회의사당에 성조기를 계양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는 또 하나의 주요 임무는 성조기를 판매하는 일이다. 이것도 새 성조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사용한’ 성조기를 판매하는 일이다. 즉 국회의사당의 국기계양대에 한번 올려졌던 것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한’ 성조기는 아무에게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지역의 下院의 원이나 州의 上院의원이 요청하면 국기사무소가 새 성조기를 올렸다가 내려서 보내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성조기는 ‘사용한’ 것이긴 하나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가격은 가로 5피트에 세로 3피트의 꽤 큰 성조기가 10달러 40센트, 이 중에는 국기계양대에 올렸다가 내리는 비용이 3달러 30센트가 포함되어 되어있고, 우송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략 15달러 정도이면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를 구입 할 수 있는 셈이다. 훨씬 큰 大形 성조기, 예를 들면 가로 12피트에 세로 8피트이고 면으로 만든 것은 70달러 30센트로 훨씬 비싸다.

이쯤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를 사는가를 알아차렸을 줄 안다. 국회의사당에서 사용했던 성조기이니 그냥 상점에 가서 사는 것과는 다른 ‘歷史的인 物品’이 되는 것이다. 국기사무소는 이들 성조기를 보내면

서 국기사무소에서 실제로 국회의사당의 국기계양대에 올려졌던 것이라는 ‘증명서’ 까지 첨부해서 보내준다고 하니 상당히 역사적인 물품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歷史를 역지로 만드는 것 같은 이 성조기 販賣는 狹窄한 상술같이 보이나, 이 일이 1937년에 시작된 것이라니 이미 60년이 된 것이며, 이 일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된 셈이다.

어떻게 이일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처음 시작한 1937년과 1938년, 2년 동안에는 겨우 12개의 성조기가 올려졌다가 내려져서 판매되었다고 한다. 1940년에는 24개, 10년 후인 1950년에는 240개였다. 그러다 10년 후인 1960년에는 1만 6,013개, 1970년에는 3만 1,722개, 1980년에는 6만 9,579개 그리고 1990년에는 무려 14만 1,565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에 이렇게 올려졌다가 내려져서 팔린 국기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242만 4,879개, 그러니까 대략 미국 인구 100명중에 한 명은 이 국회의사당의 성조기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들 성조기는 주로 낮시간에 올려지며, 이렇게 요구가 많아지니까 대략 1분 정도 국기계양대에 올렸다가 내린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1976년 7월 4일, 즉 미국의 독립 200주년 때에는 하루에 1만 471개의 성조기가 올려졌다. 이

신간소개 장상길, 미국에서 본 미국이란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의 체험 (서울, 약업신문출판, 2002) 35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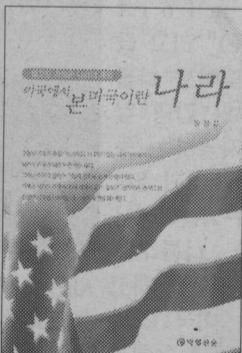
장상길(약대 60년 입, 약업신문사장) 동문은 '73년 도미하여 '75년 뉴욕주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 약업에 종사하며서 보고 느낀 미국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내놓았다. 이 글들은 '79년부터 동아제약 사외보인 동아약보와 동아의보의 "장상길 칼럼"에 게재되었던 글 중 최근 것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9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여인천하인 미국의 남녀관계, 2장은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대통령들과 관련한 글들, 3장은 미국인의 장수를 위한 각종 노력들, 5장은 미국의회의 성조기 판매사업을 비롯한 미국인의 애국심과 관련된 글들, 6장은 매직 존슨, 밥돌 등 유명인사들이 이야기, 7장 한국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충격, 8, 9장

은 의약업계의 이야기들을 내용별로 모아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뉴욕소재 Little Neck Community Hospital에서 약국장으로서 21년동안 근무하면서 체험한 미국사회 각종 단면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미국의 각종 문화와 사회상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흥미있는 글들을 담고있으며, "성조기 판매사업"도 위의 글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각종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문제들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있다.

<저자 연락처 : 631-580-0801>



<16면 安樂死에서 계속>

동계올림픽 예처럼 동점일 경우 객관성보다 주관에 의해서 각 국가의 채점점수가 나오듯, 동일한 법인데도 두 정권(민주당과 공화당)의 집행이 전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캐스팅보트의 칼자루 전 자의 주관에 따르기 때문이다.

V) 앞으로의 전망
현행법(CSA = 통제약품 법)으로 PAS에 참여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가부(可否)는 1개월 내에 나올 법원판결에 달렸다. 만일 공화당 소원대로 처벌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약의 축(오리건 안락사 법, DWDA)은 부시 정부의 버락을 맞아 하루아침에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 재판은 절차상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행법으로 처벌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날에는, 공화당정부는 현행법(CSA)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강화법(註*)은 전에 의회에서 시도했다가 AMA의 반대로 도중하차한 전력에 있어 이것 역시 낙관할 수가 없다. (註* : 치사량 약물남용 예방법 = Lethal Drug Abuse Prevention Act).

그리고 보면 오리건의 PAS는 종전(민주당 시절)과 같이 현상유지 될 가능성이 많으나 두고볼 일이다.

자랑스러운 2세대

Who will Rebuild the Broken Bridge?

Columbia University(N.Y.), Korean Students Culture Show 2002를 참관하고



윤상래(수의대 62입)

묵묵히 미국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또 다른 삶의 보람중의 하나는 우리 2세들의 씩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들이다. 지난 3월 9일에 New York 소재 Columbia University에서 열렸던 "Korean Students Association Culture Show 2002"에 참석하면서 나는 어떠한 내가 자문하여 오던 것의 어떤 답변을 발견한 듯 하여서 매우 신기한 흥분마저 느끼게 되어 그 소감을 여기에 적는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국 학생회가 주최한 "2002년 한국 문화 공연회"는 Frank Yoon 군과 Juliana Oak양의 간단한 환영인사 후, 그런 강당이 떠나갈 듯 요란한 "징", "북", "장고", "쟁과리"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되었는데, 그 요란함과 어지러움 정도로 화려함은 마치 "나이야가리"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장관과 시원함이 있었다. 이어서 벌어지는 6.25를 전후하여서 펼쳐지는 한민족 최대의 비극을 다룬 공연극(Who will rebuild the broken bridge?)은 그 표현이 너무나도 실감이 가고 극적이어서, 800여의 노소(老少)관중이 한결같이 눈물을 떨구는 시간이 되었다.

Who will Rebuild the Broken Bridge?

이야기는 54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월남하여서 고학을 하면서 학업(대학)에 전념하던 두 젊은 남자가 통학하던 열차간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시작이 된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곧 이어서 이듬해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후 여자는 (모)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게 되고, 남자는 Engineer로 직장근무를 하게 되면서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이하였으랴!!! 6.25라

는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가 곧 터지게 되어 남, 북한이 영원히(?) 갈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이복에 남아있던 부모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단신으로 떠나가게 되고, 급기야 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식이 두절되고 만다.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유복자를 키워온 부인은 1985년도에 암으로, 사랑하던 남편을 영영 다시 만나지도 못한 채 그만 이 세상을 뜨고 만다.

모친의 유명을 받들어서 계속 부친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아들은 드디어 부친께서 Engineer로 일을 하면서 생존하여 계신 것을 알아내게 되고, 2000년 8월에는 「이산가족 찾아주기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되어 극적으로 부친을 만나게 된다.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

우리 한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난과 비극의 연속이었다. 씩씩하던 고구려 무사들의 빼어난 기상과 지도자 양성을 도모하였던 신라 화랑정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뺀다면 우리의 한반도는 열강 세력에게 밟히고, 또 밟히고, 또 다시 짓밟히는 치욕적인 수난을 반복하여왔다.

부패한 소위 왕이나 국사를 맡은 대신들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국가 경영의 경륜이 없이, 눈앞의 사리 사욕만을 탐하던 정책으로 우리의 한 민족은 수천 년을 너무나도 시달려왔다.

우리는 도대체 "오천년이라고 자랑하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왔다는 말인가? 오늘날 그 좁은 땅 덩어리를 두고서 북한과 "신라"와 "백제"간의 신관 삼국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것이 역겨워서 우리는 이역만리 移民船에 오르게 되고,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30여년 후, 1992년도의 韓人을 상대로 한 LA의 폭동사태등은 우리의 韓民族이 이 미국의 사회에서 처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러 펼쳐진 학생들의 Fashion Show, Modern Dance, Song medley등은 우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그를 통하여서 발랄하고 싱싱한 우리 2세들의 감각과 예술적 재능을 볼 수 있어서

"Broken Bridge"의 슬픔을 거의 잊게 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었다.

이 학교에 한국 고전 무용 전공이 있을 리는 만무한데, 다음에 계속되는 부채춤(Fan Dance)은 그 휘황찬란한 의상도 의상이거니와 그 기교 또한 정교하여서 보는 사람의 눈을 현혹케하여 매우 장관이었다. 이 순간 지금껏 고장난 녹음기처럼 아이들에게 한국 인임을 잊지말라고 꾸중해오던 나로서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2세대들로부터 나온 실력들이었을까?

마지막의 인사말에서 Frank Yoon은, "이 사회를 당신에게 익숙한 범위를 넘어서 이해심을 발전시켜주세요! (Develop [your] understanding [the society] beyond your comfort zone)" 라고 끝을 맺어서 나를 너무나 감명 깊게 자극하는 동시에, 우리 2세대들의 가슴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힘들게 경험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주류로의 동화과정의 고충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또 이번 공연 전체를 통하여 보건대, 그들 역시 우리 조국의 어두웠던 역사를 잘 인지하여오고 있으며, 내가 이해하여온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2세대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



사진 1. Frank Yoon 군과 Juliana Oak 양의 환영인사, 2. 징, 북, 장고, 쟁과리의 풍물놀이팀, 3. 한국의 고전무용 부채춤

었다. 그들은 나처럼 어두운 역사의 부담도 없다.

새로운 토대는 마련되었고, 그 새 터 위에 새집을 짓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된다.

그들은 이사회에 충분히 적응하게 될 것이며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가슴속에 이처럼 어둡고 괴롭게 남아있던 "Broken Bridge"를 재건설하고, 전세계의 인류평화를 위해서 기여 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남가주 소식

남가주 동창회 신년총회

(2002년 2월15일 오후 6:30, 래디슨 플라자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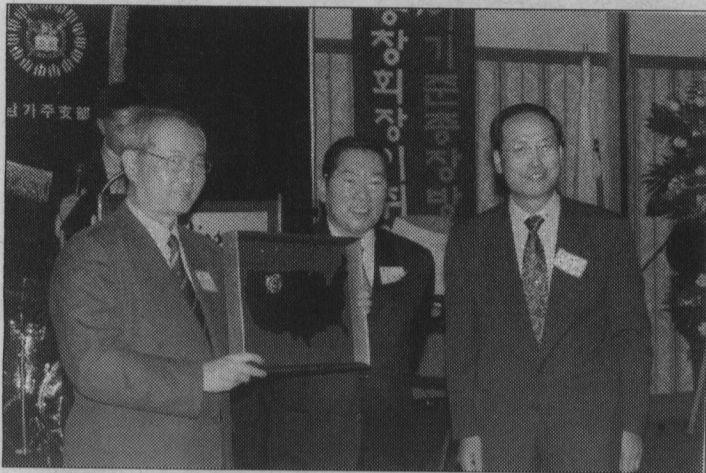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남가주 방문 기념패를 증정받는 모교의 이기준 총장, 신임 임낙균 회장과 이임하는 이청광 회장.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 약대 64입)는 이달 26일 화요일 5시에서 7시까지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각 단과대학 회장단을 초대하여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총 동창회 주소는 3700 Wilshire BLVD. # 96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9669



음대 동창회

신임 회장에 임선영 동문(성악 53)

서울대 음대 동창회는 신임 회장에 임선영씨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윤길숙씨와 최명용씨를, 총무와 회계에 조은희씨와 박인옥씨를 각각 임명했다.

2002년 한해동안 서울대음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임선영 신임회장은 "올해도 역시 선후배 동문들을 찾아 동창회의 기틀을 더욱 다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서울대 총동창회와 연계해 음악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문회 주소를 제작하는 등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음

대 동문회는 올해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봄철 아우회와 연말 송년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 동문회는 앞으로 오페라단과 교향악단 단원, 교회 지휘자와 성가대 독창자 등 각 분



서울대 음대 동문회 신임회장단.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인옥 회계, 조은희 총무, 최명용 부회장, 윤길숙 부회장, 임선영 회장.

任회장 초청골프대회

2002년도 임낙균회장 초청 골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성주경 재무국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2002년 4월 4일 목요일
시간:Tee Off 12:00 PM
장소:LANDMARK AT OAKQUARY
7151 SIERRA AVE
RIVERSIDE CA 92509
참가비 : 무료
연락처 회장 임낙균
(213) 999-1600.

재무국장.성주경 (213)387-7230.
총무국장 김지영 (213)500-7977.
사업국장 백옥자 (818) 620-8316

이기준 모교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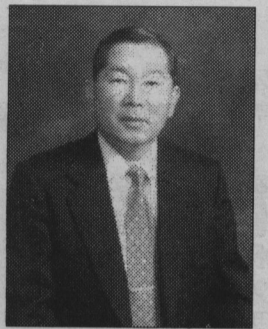
남가주 동문들 환대에 감사

남가주 동창회에 참석하였던 모교의 이기준 총장은 2월 25일자 오홍조 재미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L.A 방문 중의 여러 동문들이 베풀어 준 환대에 감사하였다. 이 총장은 L.A 지역 동창회의 여러 동문들의 고견은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내년에 오홍조 차기회장의 지도력으로 지속적인 재미 총동창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임낙균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맡게 되는 임낙균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존재 이유는 동문들의 친목과 발전의 도모, 모교와 사회발전의 기여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본국에서 그래 왔듯이 이곳에서도 사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참석하신 성정경 총영사님이나 하기환 한인 회장님은 이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미국 시민들보고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라고 한다면 진작 서울대학교 출신이 당선되었을 거라는 재미있는 가상도 해 볼 법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울대학을 다녔다는 사실 하나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왔고 그 대우는 이민 온 미국에서까지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동문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주는 모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동문이 이곳 미국에 이민 와서도 각계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서울대학에서 기초가 닦여져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문여러분! 이 모교의 중요함을 증거 하시려고 먼 태평양을 건너오신 이기준 총장님, 정정길 대학원장님, 박태호 대외협력 본부장, 곽수근 발전 기금 상임이사님들과 함께 "모교는 어머니처럼 사랑하자"는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격려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15-02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任洛均(약대 64 입)

워싱턴 DC 동문 주소록 편찬 자료를 보내주세요

워싱턴 지역 동창회에서는 금년 5월에 12년만에 처음으로 회원명부(Directory)를 발간예정입니다.

동문들은 신상자료의 원고를 제작 담당 김주희 부회장 앞으로 (hkim@synquest.com)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처는 진금섭 회장 (703-631-0631) 과 김국총무 (703-830-7979) 이다.

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동문들이 한인사회에만 머물지 않고 주류 음악계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다.

신임 회장단은 "음악을 통해 선후배의 정을 나누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LA 중앙일보>

음악대 동창회 임선영 신임회장 인사

존경하는 서울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

하시는 일 위에 축복 있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13일(수요일) 총회에서 임선영(53)을 회장으로 이성웅(58)동문을 감사로 선출해주셔서 그동안 2주일 동안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 가운데 새 임원진을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임원님들을 소개하오니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월 1일) 각 신문사(중앙일보, 한국일보)의 방문 인사로 우선 이렇게 동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새임원들이 합심하여 금년도 사업과 친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게 되겠으니 좋은 의견을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에 협조하시게 될 여러 이사님들을 선임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선임되는 대로 동문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진해서 이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동문들은 언제든지 회장에 직접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동창회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건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이미 등록이 되어 승인이 되어있으며 승인번호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이나 음악회등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음대동창회

회 장 : 임선영 (성 악 53) 562-860-7672

부회장 : 윤길숙 (성 악 48) 310-539-0533, 부회장 : 최명용 (성악 64) 562-402-0445

총무 및 서기 : 조은희 (성 악 53) 562-860-7672, 회 계 : 박인옥 (피아노 65) 818-952-6236

감 사 : 이성웅 (작 곡 58) 323-255-6243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 회장 남가주동창회 순방록

남가주 지역동창회 신년 총회 및 조찬회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은 남가주 지역 동창회를 신년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원래 일정보다 하루 전에 도착하여 마침 이곳을 방문중인 모교의 이기준 총장과 다수의 LA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영사인 성경경 동문(문리대 66년졸)의 초청 만찬회에 참석하였고 다음날인 총회당일 2월 15일에는 LA 동문들과 조찬회를 가졌는데 예정대로 숙소인 Radisson-Wilshire Hotel에서 이회장의 초청에 의하여 재미 총동창회 남가주 지역동창회의 이청광 회장, 임나균 부회장, 오홍조 재미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평의원, L.A. 지역 전 회장단 그리고 이기준 총장 및 그 일행과 함께 조찬을 갖었다. 이회장 및 이기준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식사 후 이기준 총장 일행은 자체의 여정에 따라 일찍 자리를 떠난 뒤에 방석훈 동문을 비롯한 평의원들과 이 지역 동창회의 전 회장단과 함께 미주 총동창회의 육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①재미 서울대동창회보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회원 수도 제일 많지 않지만 회보 구독료 납부자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남가주 지역의 동문들이 회보를 많이 읽고 제 6대 집행부 회보발간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이회장의 해석에 참석자 일동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②동창회보의 광고

이회장은 동창회보에 게재할 광고는 광고의 성격에 따라 동창회보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대한 일인 관계로, 특히 정치적 의미가 유추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그 결과 전에 미주 총동창회 본부 임원회의에서 얻은 결과와 대동 소이한 반응을 받았다. 즉 동창회보 발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광고를 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참석자의 다수의 의견이었으나 이 문제를 신중히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상업 광고는 무방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③ 서울대학교 음대학생 미주 순회 공연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재미 총동창회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며 큰 재정적 부담 없는 사업이고,母校와 동문들의 유대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뜻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저녁 6시 30분부터 있던 2월 15일 남가주 지역 동창회 총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 회장은 많은 동문들과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각 단과대학 별로 배정된 단과대학 좌석별 배치에 따라 단과대학별 동문들의 관심사를 집중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그 중에도 대학원, 사범대학, 치과대학, 공과대학 동문들의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기할 사항은 많은 동문들이 회보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가능한 많은 이러한 동문들에게 회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얻으려 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성과를 얻었다. 본인은 그 날 밤으로 시카고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저녁 9:30 경 아쉽게 자리를 떠나야 했다.

조지아 소식

2002년도 GA지역이사회

2002년도 이사회가 지난 3월 9일 서울가든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동문내외의 30여명이 참석하여 2002년도의 동문 행사 계획 및 예산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아우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시작하여 격월로 동문 골프 모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12월경에는 종래의 다른 송년 모임과는 다른 아주 재미있는 송년 모임을 갖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예산 사용부분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한미 장학재단 분담금, 미주 총 동창회 분담금등을 유지하고, 동문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발송된 이사회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곽민자 부부, 김만복 동문, 김수일 부부, 김준휘 부부, 김재철 부부, 김재호 부부, 문종현 부부, 박희창 부부, 방창모 부부, 은철수 동문, 이정희 동문, 임수암 부부, 임한웅 부부, 장병건 부부, 조덕성 부부, 주중광 동문, 허지영 동문, 최재학 동문.

김재철 회장 신년 인사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eorgia의 Dogwood의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고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2월말에 모친상을 당했고 김예순 동문이 장모상을 당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슬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9일 2002년 이사회를 통해 금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부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아래의 2002년의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작년의 사업계획과 별 차이는 없고 내용 면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하려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Georgia지부 자체의 기금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는 그 동안의 미주 동창회의 수고로 복잡한 서류없이도 각 지부에서도 "Tax Exempt Status"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 동문회를 위한 기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Tax Deductible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Georgia지부의 기금 조성에 많은 협조가 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각 지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미주 총 동창회를 돕는 의미로 회원 각자 각자가 동창회보 구독료를 완납해 주시면 총동창회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미주 총 동창회의 번영이 바로 각 지부의 번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 19일에 춘계 아우회때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행사일정

1. 가을 아우회 : 10월 13일(일) 예정(장소미정)
2. 연말 파티 : 12월 6/13(금) 개최 예정 (장소미정)
3. 골프모임 : 4월 14일(일) 12시, Berleley lake Golf Club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장 김 재 철 배상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김재철 회장 (공대 '64)모친상
지난 2월27일,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김재철회장 모친께서 91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예순 (문리대 '68)동문 장모상
3월 9일: 시카고에서 89세를 일기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1) 2001년 총회 및 망년회에 모인 회원들, (2)2001년 가을 아우회 Redtop Mountain에서, (3) 2002년도 이사회, (4)3월24일 제7일 안식일교회 연주장에서 이태환(음대 84) 곽민자(음대 65)동문과 김재철(공대 64)회장.

조지아 춘계 아우회

◇일시: 5월 19일(일)
오전 11시- 4시
◇장소: RedTop Mountain Park Shelter #2
- Direction: I-75 North Exit 285에서 Right Turn 2마일지나 오른쪽 Shelter #3



뉴잉글랜드 소식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출범

많은 동문들 기금모금 참여 회장에 박경민 동문(의대 53 입) 선출

박경민 동문(의53)이 지난 3월 9일 100여명 참가한 발기인 대회를 거쳐 뉴잉글랜드지역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사업회가 발족하고 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간 박 동문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5개 주 (MA, RI, NH, ME, VT) 한인회장 및 한인 대표와 함께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사업회의 창립 준비를 위하여 지난 수개월간 수

리가 먼 뉴잉글랜드는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같이 초기이민의 물결이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뉴잉글랜드내에 있는 한인역사와는 빼놓을 수 없는 여러 역사적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그 예로서 구 한말 개혁파의 대표적 인물이고 西遊見聞을 펴낸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한국 최초의 방미외교사절단인 1883년 7월 보빙사(報聘使)의 일원으로 왔다가 하버드 대학 진학의 꿈을 갖고 1884년에 Governor Dummer Academy에서의 수학하였으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정책을 인정한 미일 간의 Taft-Katsura 비밀협약을 한 Portsmouth(NH) 평화회담장의 유적, 이승만, 양유찬 등의 하버드 대학 유학, 한국인 전체의 가슴을 후련하게 한 쾌보를 전한 서윤복, 함기용과 이봉주의 보스톤 마라톤 석권, 몇 년 전 한국을 송두리째 맡아 쥐었던 IMF설립회의를 한 Mt. Washington 호텔 등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하였다.

이 지역 여러 동문들도 박 동문을 도와 사업회의 창립에 큰 협조를 하였는데 창립 당일까지 모금된 기금 \$15,000 중의 상당액이 지부 동문회와 동문들이 쾌척한 것이었다. 이 모금에 참여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백린(병예회원), 김영호(치대45), 주봉갑(의대50), 정태진(의대53), 손정호(의대53), 안광원(의대53), 박경민(의대53), 인준식(사대55), 이재신(공대57), 강길원(의대59), 정정욱(의대60), 김은한(의대60), 성낙호(공대60), 정상국(의대 60), 김문소(농대61), 윤용훈(공대68), 최홍균(공대69), 김수환(공대70), 윤광현(사대75)



또 사업회 회칙 초안과 발기인 대회 프로그램제작에 윤희경(문62)이 수고하였다. 이는 서울대 동문들이 서로 서로 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서울대인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한 좋은 예라 하겠다.

이 사업회의 박경민 초대 회장은 본 지부 동창회를 창립하여 초대와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지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는 현재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장으로 지역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갖고 식견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인 무료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서는 NE 한인회회보 4:6 (3-2-02)를 참조하기 바란다.

<투고자 윤희경 동문>

서울대 동창회 음악회

5월1일 저녁 7시 30분

동문여러분,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내의 한인 단체 지원을 위한 연례 음악회를 금년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제 3회 음악회를 결산하여 \$3,000의 수익금을 NE 지역내의 한인단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음악회에 출연한 장래가 촉망되는 동문 음악자들은 대부분이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학교에 수학중이었으나, 금년에는 더 한층 격조 높은 음악회가 되고자 잘 알려진 현역 중견음악인을 초청하였습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황보영 동문(음대 65, Violin),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의 교수로 있는 변화경 동문(음대70년 졸, Piano)과 김이선(Cello)씨, 그리고 New York 에서 활동하는 Soprano Grace 조씨 등이 출연하며, 이들 출연자들은 자선음악회의 취지에 맞추어 무료출연에 쾌히 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의 준비를 위해 후원금 모금, 프로그램제작, 광고 및 홍보 등으로 수고하는, 정정욱(의대 60), 윤희경(문리대 62), 윤용훈(공대 67), 변종원(공대 70) 동문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므로 지역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다음 -

제 4회 서울대 동창회 음악회

일시: 2002년 5월 1일 저녁 7:30분

장소: St. Pauls Episcopal Church, Brookline, MA

Ticket: \$20, \$10(학생)

NE 지역 서울대학 동창회장 이재신 (공대 57입)

全仁宰 (사대 54년 졸) 동문

「Emerson의 인간과 사상」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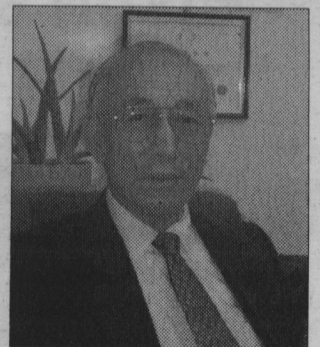
제17회 보스톤 노인대학 강좌

제 17회 노인대학 강좌가 지난 3월 16일(토요일) 오후 1시 Brookline에 소재한 보스톤 한인교회(담임 이영길 목사)에서 노인회원 및 많은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영길 담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신임 주봉갑 노인회장과 김영기 NE 한인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박경민 노인대학장의 공지사항 설명이 뒤따랐다.

첫 강좌는 주 보스톤 총영사관의 이병국 교민 담당 영사가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대한 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수강생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全仁宰(사진·사대 54년 졸) 동문께서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이고 문필가인 "Emerson의 인간과 사상"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였다. 전인재 선생께서는 Emerson을 모르고서는 미국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번째로는 Master Suh로 알려진 서대식 사범에 의한 "노화



방지 종합 건강운동」의 강좌는 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년기의 ②순환운동으로 나누어 강의하고 시범을 보여 수강생들이 모두 강사들 따라 열심히 실습하였다. 또한, 김은정(소프라노), 강봉수(테너), 반주(김경희)의 짧은 음악도에 의한 우리나라 가곡노래 선율은 노인 어른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었다.

강좌(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도의 기록으로서는 보스톤 한국일보(3-21-02)와 NE한인회보(3-2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가 끝난 후 이 교회의 여선 교회에 마련한 만찬과 다과로 즐거운 친교시간을 갖었다.

<투고자 박경민 동문>

뉴욕지구 소식

脫北難民 돕기 자선음악회

5월5일, 뉴욕 효신장로교회

동문 여러분, 苦痛받는 탈북 난민들도 돕고 時代的으로 절실한 歌曲普及에 貴한 格려를 보내주시는 동문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5일에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서울대 동문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이일령, 김성지, 김만규, 서병선 네동문이 출연하오니, 이 음악회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다립니다.

2002년 3월 8일

뉴욕 예술 가곡 연구회 서병선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Presents

탈북난민돕기 모금 음악회

Benefit Song Concer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Sacred Songs & Art Songs - Solo & Ensemble Performances

* Piano: Hea Won Kim

* Special Guest Artist: Camille McEdward Vocalist, Joo Young Oh

기도, 기베라리 시몬의 방목사, 오산나, 자유의 집, 내리물 솟아나기, 주영미, 산그리울, 그리운 유산산, 전안래, 찬이 꽃이 필이, 황안개, 알리미, 보리밭

HANDEL, DVORAK, VERDI, BARTLETT, SARASATE, KOREAN SONGS

조영옥, Joo Young Oh	카밀레 맥에더워드, Camille McEdward	김혜원, Hea Won Kim	조영옥, Joo Young Oh
이일령, Lee Il-ryung	김성지, Kim Seung-ji	김만규, Kim Man-gyu	서병선, Seo Byung-seon
이일령, Lee Il-ryung	김성지, Kim Seung-ji	김만규, Kim Man-gyu	서병선, Seo Byung-seon

DATE: SUNDAY, MAY 5, 2002 at 7:00 PM

PLACE: 뉴욕효신장로교회 (한지강 목사시무) HYU SHIN CHURCH
45-15 164th St. Flushing, NY 11355 (Midway South from Northern Blvd. 1st St.)

주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주관: 뉴욕효신장로교회, 전선중·고등학교뉴욕동문회

행사준비위원장: 배희남

TICKETS \$15.00

▲ 서의광 미용실 (718) 463-8999 ▲ 안국서회 (718) 762-1200 ▲ N.Y. ART SONGS (212) 567-6918

북가주 소식

신임회장 鄭助雄동문(공대 64졸)

정조웅 서울대 북가주 동문회장은, "60평생 남 앞에 나서는 자리를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동문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올해부터 임기1년의 북가주 서울대 동문회를 맡은 정조웅 회장의 새해 소감은 동문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아주 준비 없이 맡았지만 배우는 기분으로 1년간 봉사하겠습니다". 정회장은 경

힘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한 열정으로 동문회 일에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동문회는 주로 1년에 몇 차례 있는 행사위주로 운영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민자, 유학생, 주재원 등 각계 각층의 동문들 모두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미국생활에서 평소에 도움 주는 것도 없이 때 되면 돈이나 내

라고 하니 누가 환영하겠나는 것이다. 그 결과 미주 지역 총동창회 지부들 중 북가주 지역이 가장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년회, 골프시합, 송년회 등과 같은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는 동문회가 동문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정회장은 그래서 자신이 먼저 동문을 찾아가겠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 회보를 통해 동문들이 서로 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도우는 공감대를 갖자는 것이다. 정회장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 동문 2세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운영, 특기생 후원, 어려운 동문돕기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년 내에 모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문회장이 바뀌어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기초는 만들겠습니다".

정회장은 지난 64년 서울 공대 조선항공과를 졸업한 후 졸업 기계 제작 분야에서 일해왔다. 77년 10월 가족(열 사진)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후에도 GTE등을 거쳐 현재 THERMONICS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북가주 골프대회

4월 20일(토) 오전 11시 서늘골프코스

북가주 서울대 동문회 골프대회가 4월 20일(토) 오전 11시 서늘골프 코스에서 개최된다.

올들어 첫번째 동문회 골프대회인 이번 대회는 챔피언, 2등, 3등 그리고 장타와 근접상등 상품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다.

회비는 1인당 80달러
연락처 정조웅(408) 896-0177, 정지선(510) 909-4092
입승패(510) 381-1054, 신인철(408) 247-0878

이 회사는 반도체 칩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

그는 올 한해 개인적으로는 부인 빅토리아 정씨가 경영하는 빅토리아 패션과 베스트아 카페 (캘러리아 마켓 내)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家和萬事成. 가정일이 잘 풀려야 동문회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RMONICS

CHO CHUNG
Machine Shop Manager

3350 Scott Blvd. Bldg. No. 32
Santa Clara, California 95054-3182
408-496-6838 • Fax 408-496-6918
Cell 408-896-0177

북가주 신년 동창회사업이 계획되는 정조웅 회장 사무실.

정회장은 부인 빅토리아 정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정원관리와 가구제작이라고 한다. <투고자 입승패 동문>



시카고 소식

趙哲濟동문 별세

(문리대 55년 입)

시카고에 거주해 오던 조석제 동문(문리대 55년 입)이 숙환으로 오랜 투병끝에 지난 3월 12일 66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는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시절에



낙천적인 성격과 재담으로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던 생전의 조석제 동문부부의 어느날.

맞은 4·19 혁명시에는 자유당 독재 타도에 앞장선 기개와 꿈을 간직한 채 시카고에 정착한 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재담, 노래솜씨와 지도력으로 동문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였으며 숙환으로 투병중에도 책을 벗삼아 사색과 낙천적인 삶을 살았다. 이러한 그의 "지도력과 충기와 담백하고 명량한 삶"을 기려 서울대 동문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우정을 나누는 서울중학교, 경남중·고등학교 동문들과 생전에 소속한 교회의 교우들이 장례위원회(장례위원장 김봉현과 위원에 권오화, Ray Kim, 안순영, 유정호, 이용우, 최길웅, 최희수 및 시카고 한인 제일 연합 감리교회 교우상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趙동문을 고별하는 문상예배는 3월 15일 오후 8시 Colinal Funeral Home(8025 W. Golf Road, Niles, IL 60714)에서 시카고 제일 연합 감리교회 손용익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었는데, 이

영결예배에는 250여명 이상의 친지, 교우 및 서울대 동문(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한재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장, 최길웅 시카고 문리대 회장, 최희수 시카고 문리대 총무의 딸은 동문) 등이 참석하여 유가족을 조문하였다.

이 날의 영결식은 조문객들의 목도로 시작되어 찬송(28장)과 성경 봉독에 이어 김택기 장로의 기도, 미국 중서부 경남 고등학교 동창회장인 유정호 장로의 고인 약력 소개, 정치학과 선배인 송순영 동문(문리대 52년 입)과 서울 중학교 동기 이용우씨의 "기개와 담백 명량한 성품으로" 두텁고 조용하게 살다간 그를 추모하였고, 김정옥 집사의 조가에 이어, 손용익 목사의 이사야 57:1 - 2 봉독과 "평안에 들어갔나니"라는 말씀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3년 후배의 삶을 기려 입구에서 조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하였던 김봉현 장례위원장(법대 55년 졸)의 감사인사 말로 문상예배는 끝났다.

고인의 유해는 다음날 오전 19시의 발인예배에 이어 Ridgewood Cemetery (9900 W. Milwaukee, Niles, IL)에 안장되었다.

유가족 연락처 8815 W. Golf Rd., #10-I, Niles, IL. 60714 (847) 803-0603

訃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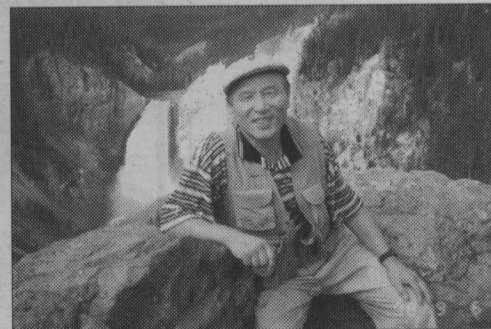
趙哲濟 동문(문리대 55년 입) 별세

(1936. 9. 8 - 2002. 3. 12)

시카고에 거주해 오던 조석제 동문(문리대 55년 입)이 숙환으로 오랜 투병끝에 지난 3월 12일 66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조동문은 1936년 아버지 조갑이씨와 어머니 배정부여사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덕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중학교에 재학 중 6.25사변으로 부산으로 피난경남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 중에는 4·19 당시 이승만 정권 타도에 앞장섰다. 1963년 졸업 후 세방기업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 '73년 사직하고, 1978년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에 정착하여 동문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였다. 숙환으로 투병 중 많은 회복을 보이다가 지난 연말 병세가 악화하여 별세하였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오진 여사와 아들 상래, 자부 이해연, 손자 현일, 딸 성연, 사위 Ken Floyd와 외손자 Christopher 가 있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족들에게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알림

동문 여러분 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는 지면이니 즐겁거나 슬프거나 기쁜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시오.

하트랜드 소식

2세들을 키우는 캔사스시 한국학교 개강

김호원 동문 이사장 취임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복학기가 개강되었는데 김호원(치대 52년 입)동문이 22년의 역사를 가진 "캔사스시 한국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개강식은 지난 1월 9일 Indian Valley Elementary School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이사, 임원 및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김동문은 개회사에서 이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 2세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는데는 우리들의 고유한 역사와 풍습을 가르치고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강조했다.

캔사스 한국학교는 앞으로 학교의 번영을 위한 목표로서, 많은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 동포들은 물론 국제결혼한 동포들과 한국 어린이 입양협회와 미국인으로서 한국어와 문화 등을 배우려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영구적인 안목으로 보아, 한국학교 자체 건물 구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

캔사스시 한국학교는 1980년도에 개교하여 "밝고 맑게 자라고, 넓고 깊게 배우자"라는 교훈 아래 그간 5회에 걸쳐 33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캔사스시 지역

의 2세 교육의 산실로 확고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동교에서는 12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각 학급은 한글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되, 또래들끼리의 교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

또 자칫 지루하고 딱딱해져 흥미를 잃을 것을 감안하여 고전무용, 태권도, 음악, 연극, 응변 등 다양한 특별활동과 학예회, 소풍, 말하기 대회, 단어경연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한국 요리의 날, 한국 역사의 날 등 다양한 연중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한글 및 한국문화에 습득에 대한 동기를 유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수준높은 교사진 확보를 위하여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계층 포용을 위한 동교의 지침에 따라 현재 미국인으로 구성된 성인반에서는 12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김호원 이사장 연락처 913-897-5365)

하트랜드 치대 동문회



중서부지역 치대 동문 신년 하례회겸 친목회를 1월 20일 Kansas City에 있는 초가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김호원 전 Heartland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이 초청한 친목회에는 장명우 동문부부, 이상희동문 부부, 전혜림 동문 부부, 표성운 동문 부부와 김호원 동문 부부와 자녀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친목회를 가졌다.



2세들에게 조국을 가르치는 캔사스 한국학교 선생님들.



개학식에 온 한국학생들과 학부모들.



캔사스 한국학교의 음악 발표회.



한국학교를 뒷받침하는 이사장에 취임한 김호원 동문의 인사장면.

워싱턴주 소식

고희선 동문 연재칼럼 집필

워싱턴주 동창회 부회장인 고희선(법대 64년 입)동문은 시애틀의 기독교신문과 스포츠저

널에 논설위원으로서 2년째 고정 칼럼을 연재하여 많은 시애틀 동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의 글은 Website인 wakorea.com/gohisun 에서 직접 읽을 수 있다.



회보를 사랑하는 동문독자!

90 노령에도 잊지 않으시고 회보 구독료와 함께 회보 관계자를 격려하는 예쁜 그림엽서를 보내주신 한혜경(간호대 43년 졸)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모교소식

모교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 발대식 거행



모교 병원은 지난 1월 16일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단장: 成相哲교수) 발대식을 거행했다.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은 내년 상반기 개원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건물 및 시설 공사에 초점을 맞춰 온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추진본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력과 시스템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모교 차容政병원장을 비롯한 원내 교직원과 외부 건축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차원장의 격려사와 成相哲개원준비단장의 인사말, 국립암센터 朴在甲원장의 초청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成단장은 인사말에서 분당 병원 건립에 애쓴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래기간 동안 서울대 병원이 쌓아 온 명성과 최고의 인력, 의술을 바탕으로 삼아 또 하나의 최고병원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초청강의 연사로 나선 국립암센터 朴在甲원장은 「국립

암센터의 개원전략」이라는 주제로 병원 건립 과정과 개원 이후의 병원경영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1996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뜬 분당 병원은 올해 11월에 준공, 2003년 상반기 개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성인병 및 노인성질환 특화센터 3백병상, 일반인 5백병상 등 총 8백 12병상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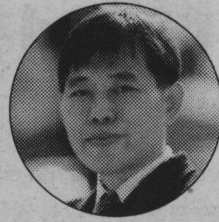
미술대학 학장에 金炳宗교수

부학장에 權寧傑교수 선임

모교는 지난 1월 1일자로 미술대학 학장에 동양화과 金炳宗교수를 선임했다.

조형연구소장을 겸직하게 된 金학장은 81년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동양화과 학과장, 미술대학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미술대학 부학장에 디자



金炳宗 학장

인학부 權寧傑(76년 美大卒)교수가 선임됐다.

공대 홍일점 교수 탄생

전기컴퓨터공학부 田華淑교수



최근 모교 공대에 홍일점 교수가 탄생했다. 지난 99년 모교 공대 기금교수로 부임한 田華淑

(83년 工大卒)교수(사진)가 지난 12월 31일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이로써 모교 공대는 첫 여성 교수였던 재료공학부 朴順子(54년 工大卒)명예교수가 1998년 정년 퇴직한 이후 끊겼던 여성 교수 인맥을 4년 만에 다시 있게 됐다.

田교수는 학부에 이어 모교 대학원에서 85년 석사학위, 89

플라자」라는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

노환으로 병석에 있는 梁씨를 대신해 부인 張永會씨와 장남 昌弘씨가 이날 기증식에 참석했다.

梁씨는 유도선수로 승승장구하다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막내아들의 꿈을 기려, 이번 기금을 모교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모교는 기부액 전체를 체육교육과의 장학금과 학술진흥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재일교포 梁天植씨

사대 체육교육과에 65억 기증

지난 1월 29일 재일교포 梁天植(79세)씨가 한·일 월드컵을 맞아 스포츠를 통한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모교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65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증했다.

일본 교베시에 거주하고 있

는 梁씨는 10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부동산업으로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명동 로얄호텔의 공동창업 멤버이기도 한 梁씨는 미국 LA한인타운에 「코리아 타워

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파로서 서강대, 이화여대, 한성대를 거쳐 모교에서 재직해왔다.

79학번 동기인 한국의국어대 전자공학부 鄭東根(83년 工大卒)교수가 남편이다.

박물관

유리원관필름 특별전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지난 1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대미술전시실에서 일제시대 우리 나라 생활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유리원관필름 1천3백여 점을 특별 전시한다.

유리원관필름은 유리판 위에 사진용 감광재료를 도포하여 만든 것이며, 이들 필름은 193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일본인 사회학자이며 민속학자인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한국의 민속을 조사하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기록되어 있는 생생한 장면들은 우리 나라 민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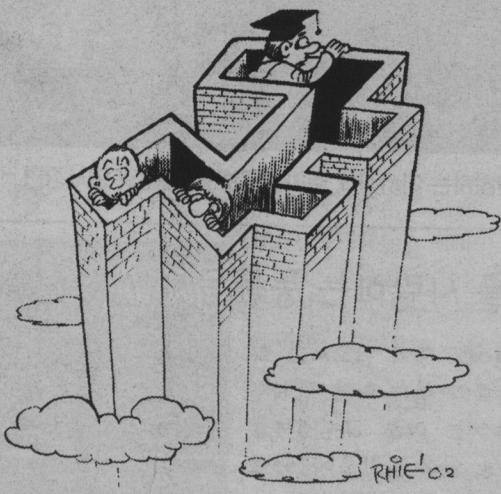
△ 전시물 내역: 1) 유리원관 사진 70여 점 - 생활과 무속에 관련된 1930년대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2) 유리원관필름 50여 점 - 다양한 내용의 유리원관필름 실물 전시, 3) 관련 자료 20점 - 1930년대 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

△기타: 1) 전시실 내 슬라이드 부스 - 다양한 원관필름을 슬라이드를 통해 감상, 2) 전시실 내 유리원관필름 전시 부스 - 유리원관필름을 실물로 확인. (變)

모교 소식 직접 보세요
<http://www.snu.ac.kr>

만평

李元馥



높을수록 스스로를 가두기 쉽다!

정치·외교학과

신임 회장에 朴鍾圭동문 선임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具範謨)는 지난 1월 11일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鍾圭(61년卒·KSS해운 회장)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차회장은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선배동문들뿐만 아니

라 젊고 패기 있는 후배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자』고 말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동창회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具範謨·桂昌鎬(54년入)동문을 고문에 추대하고, 부회장에 李澤微(61년卒)·金學俊(65년卒·본회 부회장)·鄭鍾旭(65년卒)·李富植(66년卒)·安清市(67년卒)·張重雄(68년卒)·洪思德(68년卒)·金大起(69년卒)·張乃植(69년卒)·朴熙俊(70년卒)·李圭煌(70년卒)·朱鎮軒(74년卒)동문을 선임했다.

또 감사에 許璉(68년卒)동문을 선출했다.

특지장학금 출연 봇물 터져

현재까지 21개 특지장학회 운영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광토건 林光洙회장, 지질학과동창회, 재미동창회 吳仁錫 명예회장 등의 특지장학금 출연이 봇물 터지듯 쇄도하고 있다.

특지장학금 제도는 본회가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및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1구좌 5천만원)를 설립,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교 재학생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 전액을 안정적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수익으로 장학금

을 지급하고, 그 과정을 출연자에게 보고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출연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직접 선정, 매년 2월과 8월에 시상할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별도의 비용없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연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는 「특지장학회」의 모든 권리(선발, 지급, 운영)가 출연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귀속돼 영구히 운영된다.

현재까지의 장학회 내역을 살펴보면 21개 특지장학회(50개 구좌)와 3개 기금장학회가 운영

되고 있다. <별표 참조>

기금장학회는 특지장학회 설립의 뜻은 있으나 출연금이 부족하여 장학회를 우선 설립 후, 추가 납입을 약정하고 운영중인 장학회이다.

한편 본회는 재단법인 관악회 2002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동문 또는 기별동문회와 모교 재학생간의 1대 1 결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지장학회·기금장학회와는 별도로 동문 개인 또는 기별동문회와 재학생 1명을 결연시켜 등록금 전액만큼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후배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문은 물론 학부모, 기업, 단체, 서울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지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702-2233)

임광토건 林光洙회장

「특지장학금」 3억원 출연



최근 본회 수석부회장이며, 공과대학동창회 회장인 임광토건 林光洙(52년 工大卒)회장이 특지장학회 설립 기금으로 3억원(6구좌)을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林光洙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 6명에게 「林光洙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경 충북도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이끌어가는 「사단법인 충북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林회장은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86년 충북장학회를 설립,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孫致武특지장학회」 설립

특수건설 金鍾璠회장 1억 쾌척



지난 1월 10일 본회 金在淳회장이 지질학과동창회 金英雄회장(右)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2월 31일 (주)특수건설 金鍾璠(52년 文理大入)회장이 지질학과동창회를 통해 본회에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다.

2000년 1월 별세한 지질학과 孫致武명예교수의 제자인 金회장이 스승의 업적을 기리며, 국내 지질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뜻 기금을 쾌척

한 것이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지질학과동창회(회장 金英雄)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孫致武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미동창회 吳仁錫명예회장

「특지장학금」 5천만원 기부



최근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명예회장(사진)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본회에 5천만원을 출연했다.

본회 부회장이며, 재미동창회 「모교와 후진을 위한 1백만불 기금위원회」 위원장인 吳회장은 지방출신 학생 중 서울에 연고가 없으며,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 1명에게 1년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吳仁錫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에 열

릴 200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부터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법대, 경영대 등의 순으로 돌아가며 재학생 1명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지 및 기금 장학회 내역

<출연순, 1구좌 5천만원>

장학회 명칭	설립자	구좌/금액	기지급 장학생수 (총원)
1 洪性大특지장학회	洪性大(63년 文理大卒) 상산학원 이사장	6구좌	59명
2 李吉女특지장학회	李吉女(57년 醫大卒) 경원대 총장	2구좌	27명
3 金讚淑특지장학회	金讚淑(60년 齒大卒)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4구좌	18명
4 亞南특지장학회	金柱津(54년 法大入) 아남그룹 회장	10구좌	60명
5 張世一특지장학회	張世一(63년 工大卒) 일성(주) 회장	2구좌	8명
6 朴柱鐸특지장학회	朴柱鐸(74년 商大卒) (주)큐피스 회장	1구좌	7명
7 楊銀淑특지장학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간협 선거관리위원장	1구좌	5명
8 齒佛會기금장학회	치대 불교학생회 OB	2천5백만원	5명
9 鄭八道·李慈倅 특지장학회	鄭八道(1기 AIP) (주)흥인 회장	2구좌	9명
10 李世震기금장학회	李世震(73년 法大卒) 본회 사무총장	1천만원+ 주식2천주 (1천5백만원 상당)	5명
11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회	黃海根(60년 工大卒) 동일기술공사 회장	1구좌	5명
12 李道卿·李燦振 특지장학회	李道卿(63년 農大卒)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李燦振(89년 工大卒) 드림위즈 사장	1구좌	3명
13 李鍾基특지장학회	李鍾基(73년 商大卒) 상영무역 사장	2구좌	14명
14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회	화학과동창회	1구좌 (6천6백50만원)	3명
15 朴明潤특지장학회	朴明潤(76년 保大院卒) 청소년연구소 이사장	1구좌	12명
16 鄭哲圭특지장학회	鄭哲圭(52년 工大卒)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2구좌	6명
17 金秉順특지장학회	金秉順(4기 AMP) 한국구아노 이사	2구좌	8명
18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회	鄭大永(55년 商大卒) 前한주통상 고문	1구좌	2명
19 金鍾祺특지장학회	金鍾祺(55년 師大卒) 인제고교 교장	1구좌	2명
20 洪尙郁특지장학회	洪尙郁(87년 農大卒) 성지출판 사장	1구좌	2명
21 李元珪기금장학회	李元珪(63년 農大卒)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1천만원	2명
22 孫致武특지장학회	지질학과동창회	2구좌	
23 吳仁錫특지장학회	吳仁錫(62년 法大卒) 재미동창회 명예회장	1구좌	
24 林光특지장학회	林光洙(52년 工大卒) 임광토건 회장	6구좌	

※ 지난 1998년 3월 田溶星(50년 文理大卒)번호사가 1천만원을 출연해 설립한 「田溶星기금장학회」는 98년 2학기부터 99년 2학기까지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종료됨.

※ 「朴明潤특지장학회」는 기존 출연금 외 遺贈이 별도로 있음.

동 정

수 상



▲閔丙一(56년 齒大卒·민일치과의원장·모교 명예교수)=최근 베트남의 빈 동성 및 벤체성에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봉사를 펼친 공로로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국민보건훈장을 받음.

▲李梓旭(65년 工大卒·노키아 TMC 회장)=지난 1월 28일 핀란드 경제와 정보통신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핀란드 정부로부터 최고영예훈장을 받음.

▲金潤澤(70년 經大院卒·대광 흥산 회장·양천장학회 이사장)=지난 1월 9일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로부터 안보 평화 통일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부터 20년 근속 공적으로 표창을 받음.

▲柳子孝(75년 師大卒·SBS 라디오본부장)=지난 1월 24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계간 우리문학이 주관한 제

9회 후광문학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池哲根(51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KCIE)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李貞錫(54년 文理大卒·KBS 시청자위원장)=지난 1월 22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제16차 정기 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李時榮(59년 文理大卒·前의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1월 3일 전주대 제8대 총장에 선임돼 2월 5일 전주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짐.

▲崔吉洙(61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6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하얼빈의대 명예교수에 위촉됨. 또 미국에서 발간되는 Neurosurgery Quarterly(신경외과 계간지)의 편집위원에 선임됨.

▲李明載(65년 法大卒·前서울고검장·변호사)=지난 1월 17일 검찰총장에 임명됨.

▲金相榮(65년 行大院卒·전자신문 사장)=지난 12월 31일 전자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 부사장)=지난 1월 14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鐘憲(66년 文理大卒·前기상청장·공주대 초빙교수)=최근 창립된 한국 기상전문인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申仲植(66년 文理大卒·前시사저널 발행인·월드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지난 1월 16일 국정홍보처장에 임명됨.

▲愼榮樹(67년 文理大卒·베이징저널 발행인)=최근 열린 재중국한인회 연차총회에서 임기 1년의 한국인회 회장에 재선임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 회장·동환산업 상임지식교문)=지난 1월 11일 동환산업 인사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姜哲圭(68년 商大卒·서울시립대 교수)=지난 1월 25일 공식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상남언론재단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됨.

▲李世震(73년 法大卒·本會 事務總長)=최근 설립한 국내외 헤드헌팅업체(주)휴먼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함.

晩學의 결실 거둔 卞柱仙동문 연대서 보건학 박사학위 받아

오는 2월 25일 대림성모병원 卞柱仙(64년 師大卒·본회 부회장)원장(사진)이 「인삼섭취와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卞동문의 이번 연구논문은 집단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인삼섭취와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두 번째 역학연구이며, 인삼섭취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첫 번째 역학연구이다.

卞동문은 모교 사범대학 영 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역임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국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세계걸스카우트 아태 지역 의장을 맡고 있는 卞동문은 지난 1996년 세계의 난민과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화사업을 펼쳐온 공로로 인도 정부로부터 은코끼리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모교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다.

▲高永才(74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31일 한겨레신문 광고국장(이사대우)에 선임됨.

▲金容學(75년 法大卒·前재미동창회 사무총장·뉴욕 변호사)=최근 11년간 몸담았던 Wasserman Schneider Babb & Reed 법률법인을 떠나 Feldman Weinstein LLP 법률법인 변호사로 자리를 옮김. (e-mail: ykim@feldmanweinstein.com)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최근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에 선임돼 3월부터 강의할 예정임.

▲李啓炯(77년 師大卒·前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최근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에 임명됨.

▲姜承求(84년 法大卒·前모교홍보팀장)=최근 한미필름테크 이사에 선임됨.

▲朴成得(20기 ACAD·前정보통신부 차관)=지난 12월 31일 전자신문 사장에 선임됨.

공과대학

1백여 동문 모여 신년인사 나눠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金基衡·明泰鉉·朴鍾澈·鄭哲圭·李達雨·金貞植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로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질과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서 인류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이며, 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응용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격려했다.

또 『지난 12월 19일 공대 출신 유력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공대발전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회장은 대학 현황 소개를 통해 『작년에 미시간대, 옥스퍼드대와 공동강의를 실시했으며, 공대 교수님들이 국내외 논문상·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또 『공과대학 2공학관이 준공돼 이전 작업이 진행중이며, 鄭哲圭 前회장이 거액을 기증해서 계획한 信陽학술정보관이 설계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로 선배를 대표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金基衡동문이 모교와 공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건배를 제의했다.

기계동문회

「회원 자격·임원 임기」 회칙개정



기계동문회(회장 禹仁性)는 지난 1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9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공과대학동창회 林光洙회장이 축사를 통해 『서울대인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야속하더라도 기골있는 선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헤르만 헤세는 인생살이의 본질은 떠도는 구름에서 고뇌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에게 무한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자』고 덧붙였다.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本會顧問)=지난 1월 23~25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하시학원과 교수·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함.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本會首席副會長·工大同窓會長·충북협회장)=지난 1월 1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충북출신 재경인사를 초청, 신년교례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23일 하얏트호텔 튜립룸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신년회를 개최함.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인포럼 회장)=지난 1월 17일 한국언론재단 매화홀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한 아주대 朴東淳(57년 法大卒)교수를 초청, 「팔레스타인의 장래」를 주제로 오찬강연회를 가짐.

▲鄭鏞斗(57년 文理大卒·바울학회 회장)=최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회 설립 7주년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감리교신학대 金得中(65년 文理大卒)총장이 학술강연을 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本會 副會長)=지난 1월 23~26일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서울대 의대 미주동창회 2002년 겨울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와 PACS 현황」등을 소개함.

▲金載姪(60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원)=오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재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월 29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 2002년 학술대회 및 이사회에

참석함. 또 2월 6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종합토론회를 개최함.

▲鄭寅億(77년 社會大卒·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지난 1월 24일 미국 하버드대 정보통신정책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안식년을 보낼 일정으로 출국함.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감사·한국화가)=지난 12월 27일 중국 자금성을 방문, 청의 마지막 황족화가인 愛新

覺羅, 壽石선생과 교류하면서 共鳴筆線화법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펼쳐 한국의 자존심을 살림. 또 2월 1~15일까지 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 조선화랑에서 「분얼에서 화합으로」라는 주제로 제17회 개인전을 가짐.

▲李忠範(82년 法大卒·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1월 16~18일 「제11기 작은 사랑 실천운동」을 개최하

여 수화공연, 사랑의 휠체어 기금마련 캠페인(서초구청),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신망에 재활원) 등을 전개함. 또 1월 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함.

▲裴錫斌(85년 美大卒·모교 감사)=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공간을 나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李京美(89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1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

교육부총리에 李相周동문 임명
대통령 비서실장에 田允喆동문

지난 1월 29일 金大中대통령은 장관(급)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개각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李相周(60년 師大卒)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에 丁世鉉(71년 文理大卒)국정원장 특보, 법무부 장관에 宋正鎬(68년 司大院卒)前 법무연수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에 蔡永福(59년 文理大卒)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자원부 장관에 辛國煥(63년 法大卒)前 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에 張丞玕(70년 商大卒)금융통화운영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韓竣皓(68년 農大卒)前 중소기업청장을 기용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통해 비서실장에 田允喆(65년 法大卒)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수석에 金振杓(71년 法大卒)재정경제부 차관, 정무수석에 趙淳容(78년 人文大卒)KBS 보도국 주간, 경제수석에 韓惠洙(71년 商大卒)정책기획수석, 외교안보수석에 任晟準(71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품으로 귀국 독주회를 가짐.

▲이상은(97년 音大卒·부천시향 부수석)=지난 2월 6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마레, 피아졸라, 아이트켄,

도플러, 메시앙 등의 작품으로 귀국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1월 28일 분당 한국가스공사 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사

바이하키 하킴 사장의 예방을 받고,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함.

▲張裨珪(43기 AMP·한국국방연구원장)=지난 1월 29일 연구원 관영당에서 「테러리즘과

문명 공존」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 신순귀(88년 師大卒)군·송금숙 양=2월 16일 14시.
- * 여성오(98년 人文大卒)군·임세운 양=2월 24일 12시 30분.
- * 최찬경(90년 自然大卒)군·김은영 양=2월 24일 14시.
- * 정성훈 군·이민정(96년 齒大卒)양=2월 24일 15시 30분.

公演

유니트리오 정기연주회

—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당신과 나(You and I)」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UNI Trio의 멤버 오유진(93년 音大卒·Bis퀵텟 단원·바이올린)동문과 오현승(96년 音大卒·부천시향 단원·첼로)동문이 세종대 김성미(피아노)교수와 함께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드뷔시, 아렌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서울대 동문 人名錄 자료 송고 양식

◆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2002년 인명록에 기록 될 본인 및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과정을 이수하신 동문께서는 각각의 학과명과 입학, 졸업년도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명록의 구입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	한자성명	영문성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단과대학	학과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업 및 업종군	E-mail	핸드폰	
주택주소		주택전화	
주요 약·경력		인명록신청여부	()/주택()

- 발행일 : 2002년 6월경
- 자료마감 : 2002년 3월 30일
- 내 용:회원명부, 직업, 직장별 명부, CD-ROM TITLE
- 구입가격 : 100,000원
- 회원 인적 사항 통보 및 문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 snua2002@korea.com

◆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별 동문회(단과대학별, 학과별, 입학 년도별, 직장별, 지부별 등)에서는 단체의 임 원진 및 동문님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327 <p>민희숙(간호대 74졸) 양은석(음대 70입) 이순희(음대) 김용선(약대 55졸) 고재천(공대 57입) 김달준(약대 50입) 임희식(치대 59입) 권기홍(약대 60졸) 최경윤(사범대 51입) 양효준(치대 68입) 최병식(치대 56입) 신무수(치대 63입) 고석규(치대 65입) 지인수(상대 59입) 백남하(약대 59입) 옥중훈(상대 67입) 김구자(미술대 61입) 이종희(공대 53입) 방윤자(문리대 59입) 한혜순(간호대 70입) 노병일(경성법학 41졸) 홍훈정(음대 70입) 송정자(약대 73졸) 윤순재(사범대 60입) 김재무(상대 58입) 임동호(약대 55입) 호기원(치대 70졸)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강경수(법대 58입) 채규환(법대) 권영덕(공대 54입) 정진화(약대 54입) 문철수(농대 50입) 김창덕(약대 53입) 임윤택(약대 63졸) 이우근(음대 50졸) 니도명(치대 63입) 최무시(약대 70졸) 방연희(간호대 59입) 이병희(수외대 75입) 김상익(공대 46입) 김현주(음대 88입) 이상욱(치대 66입) 이봉수(수외대 66입) 강정훈(미술대 56입) 김선기(법대 59입) 김두희(문리대 58입) 임창희(공대 73입) 김명자(치대 57입) 김영배(미술대 61입) 도정미(사범대 52입) 김종원(문리대 69입) 김상용(사범대 50입) 송경자(미술대 61입) 김현직(농대 58입) 황봉찬(문리대 48입) 정준성(공대 65입) 이주영(행정대학원 60입) 권순찬(공대 60입) 김태운(법대 53입) 장진성(약대 66입) 황서우(약대 53입) 이병상(문리대 59입) 오재인(치대 33입) 박재호(치대) 안정희(미술대 62입) 김명수(치대) 강천호(사범대 58입) 조정시(공대 60입) 원광웅(공대 60입) 장인숙(간호대 74졸) 채수안(사범대 73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이진영(공대 68입) 이태준(음대 62입) 장기선(간호대 54입) 나정자(간호대 70입) 최희봉(상대 56입) 김희창(공대 64입) 조동현(공대 66입) 윤석철(상대 60입) 이수남(치대 65입) 김창호(상대 57입) 김성호(법대 64입) 백만일(공대 64입) 박해옥(간호대 69입) 이창대(공대 60입) 김중현(공대 59입) 탁해숙(음대 67입) 서치원(공대 69입) 박상춘(약대 65입) 정근희(약대 72입) 강일선(약대 44졸)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 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규(공대 66입) 김대우(치대 62입) 이양숙(치대 31입) 조성윤(법대 46입) 김원호(약대 63입) 서재섭(상대 53입) 김창신(사회대 79입) 추준득(공대 69입) 한 일(약대 75졸) 권혁창(법대 57입) 유진형(상대 48입) 유동희(공대 77입) 장동호(공대 53입) 최해명(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약대 60입) 김중자(사범대 61입) 김수백(치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유범(치대 66입) 이범식(\$100, 공대 61입) 이승희(간호대 47입) 강배영(상대 54입) 최명룡(음대) 신우식(치대) 박진득(농대 67입) 김경애(간호대 69입) 김동훈(약대 71입) 김경화(미술대 63입) 이상구(상대 57입) 윤용길(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약대 63졸) 김동석(음대 64입) 전낙관(사범대 60입) 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강명식(약대 61입) 이동휘(공대 63입) 탁익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재인(약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구(공대 57입) 이재선(농대 58입) 이범모(치대 74입) 이동일(약대 68입) 이원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약대 59입) 서정민(법대) 이장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음대 60입) 양은희(상대 5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하영희(간호대 54입) 문일영(음대 66입) 김죽봉(문리대 53입) 임용오(약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익(법대 57입) 김성혜(음대 71입) 이흥표(약대 60입) 윤한돈(치대 69입) 김진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김영기(약대 54입) 추요훈(농대 63입) 강신호(사범대 49입) 심진숙(간호대 68입) 주훈(음대) 김익창(약대 56졸) 정전걸(약대 49졸)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치대 54입) 최준호(치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약대 78입) 권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체(문리대 61입) 남정우(치대 48졸)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약대 68졸)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섭(약대 44입) 김순덕(법대) 김지연(약대 44입) 고용규(약대 67입) 박해란(음대 73입) 이기풍(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정렬(치대 59입) 윤병인(약대 64입) 심영춘(수외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약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중표(법대 58입) 이효경(치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한경(약대 56졸) 심상은(상대 54입) 정동구(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자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정진(문리대 60입) 구철휘(약대 78입) 박태호(치대 66입) 김성현(약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택(약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희(약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치대 65입) 이건설(치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치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성호(약대 72졸)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모(간호대 73졸) 정기정(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영선(미대 57입) 이영송(치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치대 65입) 김설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치대 56입) 최승륜(상대 53입) 장대옥(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혜인(가정대 69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웅(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옥(치대 56졸) 김동호(치대) 이병국(수외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광철(법대 64입) 김원택(공대 65입) 이정재(수외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균(약대 64입) 윤홍기(약대 64졸) 문원철(사범대 59입) 이영주(치대 62입) 박일하(치대 56입) 장정웅(미대 64입) 김은희(치대 50입) 이호일(약대 60입) 박호웅(약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약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운(법대 53입) 박일진(치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대순(간호대 59입) 권순철(치대) 신동국(수외대 76입) 임선영(음대 57입) 임민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약대 53입) 이일재(법대 53입) 김성웅(농대 70입) 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약대 55입) 이수복(약대 70입) 홍주안(공대 66입) 김홍기(사범대 58입) 문덕수(공대 73입) 이근섭(상대 56입) 정광진(농대 76입) 최예섭(치대 45입) 김재신(음대 60입) 박희서(약대 60입) 강영빈(문리대 5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광근(치대 59입) 오길평(치대 61입) 김진호(약대 64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약대 57입) 장동석(문리대 66입)</p>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샌프란시스코	8 박세록(\$100, 약대 57입) 김양주(공대 48입) 김이호(상대 55입) 황동하(약대 65입) 정유석(약대 58입) 정지선(상대 58입) 정조웅(공대 60입) 김은종(상대 59입)
04	뉴욕 (NY, NJ, PA 일부CT)	247 <p>조숙자(간호대 59입) 이선호(약대 75입) 윤하식(법대 58입) 박고자(음대 61입) 이강홍(상대 60입) 우한호(문리대 61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최구진(약대 54입) 김현중(공대 63입) 이필영(사범대 54입) 김주은(공대 71입) 김형덕(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최용열(문리대 72입) 김기웅(치대 49입) 유정자(간호대 68입) 전민욱(간호대 66입) 김익성(상대 52입) 최철용(농대 61입) 허재순(사범대 54입) 배명애(간호대 45입) 김기훈(상대 52입) 최한선(공대 56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정순자(음대 63입) 성백문(공대 61입) 정기봉(사회과학대 79입) 전원일(약대 83입) 고학진(약대 66입) 장동만(문리대 61입) 선종철(약대 57입) 김세중(공대 50입) 이종성(약대 64입) 이대연(약대 65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해(약대 59입) 양문석(\$100, 상대 54입) 김용연(문리대 63입) 최수봉(간호대 66입) 진봉일(공대 50입) 이능석(약대 63입) 김태호(약대 63입) 민현(약대 55입) 송영순(사범대 60입) 동형근(약대 51입) 이영일(약대 60입) 김학수(상대 65입) 송용길(신민대학원 69입) 신남철(인문대 81입) 전용상(공대 46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윤병남(\$100, 사범대 62입) 손갑수(약대 59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한중(약대 56입) 김문경(약대 65입) 이상훈(법대 64입) 이강욱(공대 70입) 방정화(약대 61입) 김인형(미술대 59입) 김항자(간호대 59입) 최정애(간호대 66입) 이찬서(자연대 82입) 박선섭(공대 61입) 최수용(상대 55입) 김용재(약대 60입) 김영희(사범대 62입) 송재한(약대 61입) 전재우(공대 75입) 조창현(문리대 66입) 이봉삼(약대 59입) 엄종열(미술대 65입) 김영만(상대 59입) 박대규(사범대 55입) 유재은(미대 71입) 차국만(상대 56입) 이영재(상대 58입) 윤영섭(약대 63입) 정택수(문리대 45입) 양순우(법대 71입) 김정민(약대 54입) 장태환(약대 61입) 정연희(미대 64입) 유무영(\$100, 공대 66입) 서병선(음대 55입) 장기선(약대 61입) 홍선경(약대 59입) 임석태(법대 46입) 김준중(약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정용(약대 67입) 송관호(약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약대 71입) 이진수(약대 63입) 김호연(약대 46입) 강영선(공대 50입) 이우찬(약대 58입) 임공세(약대 63입) 조규웅(약대 66입) 김종원(사범대 62입) 김석식(약대 56입) 박찬명(약대 57입) 허병렬(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약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종진(약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호(음대 63입) 박소희(약대 49입) 고석원(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서(공대 69입) 문길용(음대 45입) 이정은(약대 58입) 최윤희(문리대 56입) 이상근(약대 60입) 김영철(약대 55입) 임건식(음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약대 59입) 양명자(사범대 63입) 원두수(치대 68입) 김해암(약대 58입) 한용호(법대 52입) 장병호(약대 56입) 이기덕(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음대 65입) 전병삼(약대 54입)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약대 61입) 김중윤(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약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성(공대 69입) 박상원(음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희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약대 72입) 노용면(약대 55입) 이호호(약대 63입) 김재현(상대 70입) 이연찬(공대 52입) 선우문(약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황문하(수외대 76입) 김충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형순(미대 60입) 김승관(약대 76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지연(약대 71입) 이정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수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덕(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방영철(약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사열(법대 55입) 이상길(치대 66입) 허선행(약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약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3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규화(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약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익(농대 64입) 백윤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봉(약대 55입) 홍준호(약대 67입) 조종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중웅(약대 70입, \$100) 이경립(상대 64입) 손완배(농대 70입) 조경호(약대 66입) 성기호(약대 57입) 신규호(약대 68입) 이종오(약대 58입) 변영선(약대 65입) 이명희(약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약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옥희(약대 59입) 서상철(약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약대 72입)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약대 60입) 서홍석(약대 65입) 김일하(치대 58입) 민발식(약대 66입) 최희용(문리대 64입) 신정택(약대 52입) 이준우(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약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약대 66입) 한영수(약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약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규(약대 55입) 김장수(약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 64입) 박장생(약대 54입) 이상민(문리대 58입) 홍정표(음대 67입) 주성문(약대 58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69 구자원(법대 55입) 이소희(의대 61입) 노재욱(의대 64입) 진관보(의대 72입) 하용수(의대 61입) 임준수(의대 57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앤드류(상대 50입) 이화영(공대 62입) 윤덕상(치대 68입) 김윤하(공대 70입) 최애욱(간호대 47입) 이소정(음대 84입) 정호(공대 62입) 장철(의대 71입) 김유식(의대 64입) 하상태(의대 59입) 박준환(의대 57입) 송용덕(의대 57입) 유석홍(상대 61입) 이재봉(의대 58입) 구행서(공대 69입) 김기태(의대 52입) 정태(\$100, 의대 57입) 임정희(사법대 54입) 김우영(의대 70입) 이범구(공대 59입) 이수인(\$200, 의대 56입) 김영호(의대 77입) 조철원(문리대 66입) 송원희(미술대 60입) 문광재(의대 62입) 이재현(사대 67입) 유준석(의대 53입) 민영기(공대 65입) 김정근(의대 61입) 박일성(의대 60입) 이경자(미술대 65입) 신석균(문리대 54입) 김현규(의대 47입) 서영일(의대 68입) 조철(공대 49입) 장재찬(100, 의대 59입) 강태수(의대 65입) 문경웅(의대 67입) 홍혜례(사법대 72입) 김정수(문리대 69입)김정주(문리대 64입) 신영규(의대 57입) 주명순(간호대 64입) 설상수(문리대 56입) 정우철(의대 55입) 문병훈(사법대 46입) 하정운(치대 81입) 양홍미(의대 67입) 서운석(의대 62입) 김원정(의대 69입) 이한중(의대 61입) 마동일(의대 57입) 김이순(공대 56입) 진순금(간호대 64입) 송용재(의대 63입) 한성수(의대 56입) 박정일(의대 61입) 황규정(의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이윤모(농대 57입) 박숙(의대 64입) 김현석(문리대 69입) 이원호(의대 59입) 윤석환(치대 62입) 임영신(의대 52입) 임동수(간호대) 이기억(문리대 47입) 이광선(의대 65입) 이종일(의대 71입) 임무광(문리대 61입) 지명식(사대 65입) 백준철(공대 66입)최순강(음대 65입) 한의일(공대 62입) 한동하(의대 58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윤태(의대 63입) 윤봉수(간호대 73입) 황현상(의대 55입) 권순희(간호대 78입) 김동수(공대 48입) 계명수(의대 69입) 장홍(문리대 61입) 이백기(의대 58입) 김형수(농대 68입) 김대기(의대 68입) 안창현(의대 55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진보린(의대 56입) 이권정(공대 73입) 김용우(공대 58입) 이수인(의대 56입) 장시경(의대 58입) 정영숙(사법대 63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장세근(의대 57입) 허서룡(의대 60입) 김건(문리대 63입) 한재은(의대 59입) 김봉현(법대 51입) 이민우(의대 67입) 원종수(의대 69입) 배영선(의대 54입) 이명자(간호대 60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기춘(의대 42입) 정길화(의대 65입) 김창구(의대 65입) 이태안(의대 67입) 최혜숙(의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규달(의대 68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위정호(의대 67입) 한성화(의대 57입) 박봉수(공대 59입) 표양순(간호대 71입) 장병호(의대 66입) 조철영(의대 75입) 김인수(상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최용소(공대60입) 임현재(의대59입) 강영국(수의대67입) 소진문(치대58입) 유태임(교육대67입) 김용성(상대54입) 고병철(법대55입) 정승규(공대60입) 장윤일(공대60입) 강창만(의대58입) 구경희(의대59입) 계훈택(의대 55입) 송재현(의대48입) 배건재(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62입) 이철주(치대77입) 전영자(미대 58입) 남상용(공대52입) 고영철(의대45입) 이영웅(의대62입) 김택수(의대63입) 조현철(의대 54입) 박창훈(공대 66입) 정남재(사법대 56입) 이범세(의대57입) 임재일(농대 64입) 이정일(농대5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57입) 서상현(\$100, 의대71입) 조중행(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입) 최동규(법대 79입) 이용락(공대 48입) 이승자(사법대 60입) 임이선(\$100, 미술대 54입) 손기용(의대 68입)
06	워싱턴 DC (MD, VA)	93 박수용(100, 의대 69입) 한의생(수의대 60입) 강순임(사법대 64입) 서취영(의대 55입) 전희순(간호대 80입) 안승건(문리대 55입) 남광순(음대 64입) 박홍(의대 45입) 김신자(음대 54입) 윤낙중(의대 55입) 박양희(음대 58입) 최규식(상대 64입) 신영철(의대 53입)김병오(의대 63입) 박준영(의대) 김정환(문리대 60입) 김재동(인문대 70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운수(\$100, 문리대 48입) 백순(법대 58입) 김영기(법대 50입) 한해경(간호대 43입) 김명자(법대 52입) 유달(의대 61입) 민길우(문리대 61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이영목(공대) 박정일(농대 69입) 이재승(의대 55입) 도상철(의대 63입) 오혜현(의대 59입) 방은호(의대 42입) 조근실(사법대 40입) 조병선(의대 71입) 마계일(치대) 한해경(간호대 43입) 산준보(상대 55입) 문성길(의대 63입) 이정균(미술대 77입) 이항열(법대 57입) 주일(의대 46입) 문세화(법대 57입) 엄승용(농대 57입) 오기창(법대 50입) 김석호(공대 78입) 고무환(법대 57입) 김창호(법대 56입) 이정성(의대 48입) 박명영(의대 66입) 조남현(의대 64입) 김중규(의대 60입) 이신규(\$100, 공대 63입) 김창중(법대 60입) 김진홍(의대 68입) 장병균(사회과학대 76입) 이내원(사법대 58입) 박훈순(의대 60입) 김국(농대 75입) 락대조(음대 64입) 박영호(공대 64입)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입) 신상근(의대 52입) 조인욱(간호대 71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장효강(공대 66입) 김수용(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입) 강준희(의대 71입) 윤계일(의대 60입) 김재구(의대 56입) 전경철(공대 55입) 소숙영(간호대 64입) 이홍석(공대 49입) 변만식(사법대 49입) 정재성(의대 68입) 임필순(의대 54입) 김기환(공대 67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신영철(의대 53입) 진금선(의대 57입) 김효성(공대 51입) 이형모(의대 45입) 유영준(의대 68입) 정두현, 서규범(문리대 61입) 박인영(의대 69입) 정약훈(의대 49입) 이정(의대 59입)오광동(공대52입) 맹옥열(간호대68입)이신규(\$100, 문리대 65입) 이규선(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23 권영길(의대 64입) 한만진(공대 49입) 이철(사법대 48입) 최준환(농대 58입)허윤행(사법대 57입) 안승재(농대 59입) 최경수(사법대 52입) 전병택(상대 69입) 이태원(사법대 58입) 전계상(공대 40입) 김재호(상대 54입) 유성렬(공대 72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이순모(공대 56입) 이동남(의대 5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해숙(문리대 64입) 김영일(공대 53입) 양용관(수의대 62입) 최태욱(법대 55입) 윤재명(의대65입) 김보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26 문해린(미술대 73입) 박태우(공대 64입) 이길영(법공대 64입) 신용선(공대 55입) 김정훈(공대 46입) 박민자(사법대 58입) 김충열(의대 56입) 노승국(의대 64입) 유금영(법대 50입) 허현(공대 60입) 김성철(의대 61입) 김학래(공대 60입) 이옥배(문리대 62입) 이찬주(공대 63입) 김영창(공대 64입) 박진수(의대 58입) 이은설(문리대 53입) 현인설(공대 57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최관일(공대 54입) 이진현(의대 67입) 이규진(의대 60입) 황호자(음대 62입) 박승규(의대 59입) 김태훈(공대57입)
09	달라스 (DOLLAS)	6 권혁초(사법대 52입) 신철영 김성호(수의대 81입) 전중희(공대 56입) 김인호(공대 47입) 임성빈(사법대 56입)
10	미네소타 (MN)	16 주영돈(농대 54입) 송창원(문리대 53입) 김영남(사법대 53입) 권승림(공대 52입) 남세현(공대 67입) 박상빈(공대 71입) 남세현(공대 67입) 김태환(의대 58입) 최정윤(공대 58입) 신학철(공대 75입) 김연식(공대 61입) 문일지(공대61입) 조형준(문리대62입)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하수(농대62입)
11	조지아 (GA)	20 김용자(사법대 64입) 김예순(문리대 68입) 김재철(공대 69입) 임한웅(공대 60입)이철남(의대 50입) 사성수(\$100, 사법대 70입) 윤민자(음대 65입) 주종광(의대 60입) 유우영(의대 68입) 장병건(대학원 64입) 김만복(문리대 72입) 한영수(의대 54입) 이관호(공대 45입)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박찬기(법대 56입) 이준남(의대 59입) 계광우(공대 63입) 오경호(농대 60입)
12	아리조나(AZ)	6 서기권(공대 70입) 최종대(공대 69입) 최상호(공대 53입) 박양세(의대 48입)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진명규(공대 70입)
13	유타 (UT)	5 김인기(문리대 58입) 이정면(사법대 47입) 한성양(문리대 62입) 김성완(문리대 59입) 손홍용(공대 58입)
14	하와이 (HI)	14 신동인(공대 58입) 최치덕(법대 59입) 정태무(사법대 44입) 김동림(사법대 55입) 김성열(의대 68입) 백영기(의대 50입) 유재호(\$100, 문리대 59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오갑열(행정대학원 75입) 박성재(상대 49입) 남궁중(공대 52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창원(공대 49입) 김용진(공대 50입)
15	오레곤 (OR)	11 이철민(공대 50입) 조형원(수의대 55입) 최태인(사법대 59입) 김신호(사법대 59입) 박창성(사법대 72입) 박희진(문리대 57입)김상순(상대 67입) 김상만(음대46입) 성성모(사법대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서부)	8 이순환(의대 53입) 박종익(사법대 87입) 최원열(상대 56입) 서만길(의대 63입) 이학은(의대 57입) 홍지호(공대 53입) 박용호(의대 59입) 김현철(의대 57입)
17	기타 (중부)	3 김호균(의대 62입) 이희백(의대 55입) 유태준(의대 59입)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4 오석일(의대 70입) 김수산(의대 52입) 한경섭(공대 52입) 장영규(농대 65입) 한광수(의대 57입) 오신중(의대 60입) 정양수(의대 60입) 정구영(의대 50입) 박종선(공대 60입) 오인석(법대 59입)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입) 조동림(의대 56입)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42 송영락(의대 66입) 김사영(의대 56입) 성정호(의대 59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의대 55입) 이병인(수의대 69입) 윤원길(의대 65입) 이재희(상대 88입) 원종민(의대 61입) 강준철(사법대 59입) 최종무(상대 63입) 진병학(의대 37입) 이윤선(수의대 81입)이승환(공대 56입) 이만택(의대 58입) 김세경(미술대 62입) 이상봉(문리대 65입) 이규호(공대 56입) 영극용(의대 60입) 윤정나(음대 57입) 정덕순(상대 63입) 정학량(의대 56입) 서중민(공대 64입) 김현영(수의대 58입) 남신우(공대 61입) 김용국(의대 58입) 임광상(공대 57입) 심완섭(의대 73입)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입) 주기목(수의대 68입) 안지영(문리대 71입) 구정율(의대 55입) 오진석(치대 56입) 김영우(공대 55입) 신성식(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서진석(의대 62입) 최환(공대 68입) 양우택(의대 58입, \$100) 이기범(의대 56입) 전남남(상대73입)
20	뉴잉글랜드 (MA)	33 정정욱(의대 60입) 이재홍(공대 67입) 안광원(의대 53입) 김동희(간호대 62입) 이희규(공대 69입) 김인수(사법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김영호(치대 45입) 변종원(공대 70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김윤환(의대 60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재호(상대 56입) 김호영(의대 52입) 김교안(의대 59입) 박현자(음대 62입) 채두경(의대 59입) 김길원(의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윤상래(수의대 62입) 박병준(공대 52입)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입) 김민수(농대 61입) 변화경(음대 66입) 문대욱(의대 73입) 문형성(의대 65입)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입)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24 이정화(의대 88입) 지일성(의대 61입) 김호원(치대 52입) 박영자(사법대 54입) 차봉희(의대 57입) 김백년(의대 52입) 배규영(사법대 68입) 오명순(가정대 69입)이경배(사법대 61입) 류광현(문리대 58입) 박옥동(상대 56입) 최노환(문리대 52입)신두식(의대 58입) 오태요(의대 56입) 오계숙(미대 59입) 임하진(의대 79입) 민경환(의대 56입) 유준해(의대 70입) 박세화(의대 76입) 이상강(의대 70입) 김경숙(가정대 70입) 설원종(의대 60입) 구명순(간호대66입) 이상문(상대57입)
22	펜실베이니아	5 박분희(의대 52입) 이복인(공대 75입) 홍수용(의대 59입) 심기련(상대 57입) 심재철(공대 78입)
특별기부금		2 (고) 전시를 통문의 미망인 \$ 50, Mrs. 안광원 \$ 82
계		1,103 56,282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질문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 1)
-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애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하여도 됩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예()
- 2) 아니오()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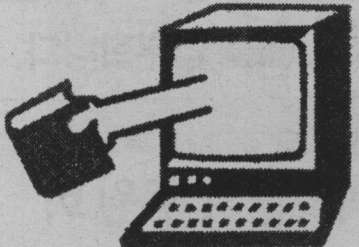
전화:

e-mail:

Fax :

기타 의견란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지부	회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365-9449 C:818-620-8316
샌프란시스코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래곤	리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욱 B:814-862-0494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밴쿠버	황택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p>강관</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법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화사업</p> <p>IBECONS INT L 김제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교회</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융/용지</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 (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p> <p>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 (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p> <p>무업</p> <p>Nina America Inc. 강석균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면우사</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원 수의과(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원 신경외과</p> <p>Rim and Sul, MDPC 임준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p> <p>병원 심장내과</p> <p>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원 위장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원 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보석</p> <p>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보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458-3551 Jud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임무광 (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희진 (문 60입) 창업 (773)463-7756</p> <p>심계</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 (농 67입) (818)404-1848 Cerritos, CA</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염색</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송통관</p> <p>S.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용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구</p> <p>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원 (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인터넷 서점</p> <p>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자동차 부품</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집지</p> <p>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원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간의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롱스 약국/시촌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피장물</p> <p>Revic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화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환 (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